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때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The JeonBuk Times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전복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14(상림동 60)

2025년 1월 23일(목) 제 3024호



김관영 도지사 이피캠텍㈜ 방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이차전지 전문기업 이피캠텍㈜ 본사를 방문 해 투자이행 상황을 점검 및 향후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시설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전북도>

전북자치도, 아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돌봄 강화

전북자치도 복지·보건 분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발표 새로운 복지서비스 대응과 일자리 확대 공공의료도 강화 지역 특성 반영 '전북형 지역완결적 공공의료' 추진

전북자치도는 올해 '함께 보살 피는 든든한 행복복지'를 비전으 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 표했다. 도 복지여성보건국 예산 은 총 4조846억원으로 도 전체예 산의 4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민선 8기 4년 차인 올해는 핵심 과제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생애 주기별 돌봄 강화, 대상별 새로 운 복지서비스 대응 및 일자리 확 대, 의료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의 료 서비스 강화, 저출생 대응과 누 구나 누리는 건강한 삶 지원 등 네 가지를 중점 추진한다.

계속되는 고물가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삶이 더 어려워진 취약 계층을 보다 든든히 보살피기 위 해 아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 별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그동안 복지서비스 대상으로 고 려되지 않았던 청년층·중장년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확대하며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 에게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살 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안전망 을 조성한다. 장애인구 고령화, 장 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증가 등 장 애인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맞춤 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인 력 처우개선으로 고용안정성을 강화한다.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질병, 부상 등으로 짧은 기 간 동안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초고령화, 1인가구, 다문화가족 증가 등 사회변화에 맞춰 분야별 복지수요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수 요에 부응한 일자리를 확대한다.

가족 유형별·생애주기별 다양 한 가족생활 맞춤형 서비스를 강 화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각종 폭력피해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고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 동 참여를 지원한다.

지역내 필수의료를 제공해 도민 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반 영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지역 보건 인프라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전북 형 지역완결적 공공의료를 추진 해나간다.

고령산모와 난임부부가 늘어나 는 상황에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 고자 임신·출산 필수 인프라를 구 축하고 난임부부와 임산부 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김은지 기자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 道 성장 '날개'로

전북도, 을사년에도 기업유치와 기 투자기업 지원에 올인 김 지사,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기업 찾아 투자이행 점검 中 심천 기업인과 상해 한국상회장 초청 전북 투자 제안 기업 유치는 물론 既 투자기업 투자이행도 적극 추진

전북자치도가 2025년에는 기업 유치와 함 께 그동안 유치해 온 기업의 실질적 투자이 행과 원활한 기업 운영 지원에 행정력을 집 중한다.

도는 22일 김관영 도지사가 새만금 국가산 업단지에 위치한 이차전지 전문기업 이피캠 텍㈜ 본사를 방문해 투자이행 상황을 점검 하고 향후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 혔다. 김 도지사는 같은 날 중국 이차전지 제 조기계 기업 SINVO의 빈싱 대표와 상해 한 국상회 이준용 회장을 초청해 전북 투자환 경을 소개하며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피캠텍㈜은 2007년 설립된 이차전지 전 해질 제조 전문기업으로, 2023년 새만금산 단에 2공장 투자를 완료하고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충북 음성에 위치한 본사를 군산으 로 이전해 전북 새만금을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

김 도지사는 이피캠텍㈜의 생산시설을 둘 러본 후 "새만금의 선도적 투자 기업으로서 약속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주신 것에 감 사하다"며 "이피캠텍㈜의 성공이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북을 방문한 중국 이차 전지 관련 기업 SINVO의 빈싱 대표, 이준용 상해 한국상회장 등을 만나 새만금 이차전 지 특화단지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새만금은 법인세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을 통해 국내외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 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으며, 24개 기업이 이 미 입주하거나 협약을 체결했다.

SINVO는 중국 심천에 본사를 둔 이차전지 제조기계 전문기업으로, 강소성과 중산 지역 에도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빈싱 대표 는 전북의 투자 환경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새만금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 을 밝혔다.

도는 2025년을 기업유치와 투자 이행의 원 년으로 삼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 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 해 도는 기존 투자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기 반으로 신규 투자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동 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정책과 지 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국내외 기업들이 전북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 만금을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의 허브로 만 들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을 당부드 린다"고 덧붙였다. /최준호 기자

도의회, 공무원에 '30억 사업 강요 의혹' 박용근 의원 조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월 72시간(최

대 30일 이내) 내에서 긴급돌봄

(200명)을 제공한다.

지난달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 강요 의혹 '예산 삭감' 등 발언 일부 확인…윤리위 회부 가능성 커져

전북자치도의회가 박용근 도의 원(장수)이 도청 공무원들에게 30 억대 사업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박 의원이 공무원들에게 '사업 을 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겠다' 고 말한 점도 일정 부분 확인돼 도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22일 도의회 총무과는 박 도의 원의 사업 강요 의혹 등에 대해 조 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의혹은 박 도의원이 지난달 도청 공무원들 을 여러 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불 러 예산 30억여원이 들어가는 전 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 요했다는 것이다.

FECO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 예산 삭감을 운운하겠느냐"며 "각

율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 트 전력관리시스템이다. 박 도의 원의 사무실에는 관련 업자도 함 께 있었다.

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시설 설치가 전력 절감에 더 효율 적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박 도의 원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시 예산 삭감, 각종 자료 요구 등 불이익을 운운했다는 게 도청 공 무원들의 전언이다. 도의회는 당 시 박 도의원 사무실로 불려 간 일 부 도청 공무원을 조사해 이러한 협박성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의원은 "내가 예산결 산위원회 위원도 아닌데 어떻게

7 2036 하계 올림픽

종 자료를 요구하겠다고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도의회는 조만간 총무과 자체 조사를 마친 뒤 윤리자문위원회 에 조사 내용을 송부, 박 도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지 검토 할 예정이다.

박정희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군산 3)은 "전북도공무원노동조 합 등에 따르면 사안이 언론 보도 된 내용과 비슷하지만 박 도의원 은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 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북도당도 지난 16일 입장을 내고 "민주당 소속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행위 의혹 을 도당은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위법이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 되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1997, 무주 · 전주 동계U대회의 환희 2014, 못다 이룬 동계 올림픽의 꿈을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로 이어갑시다

전북이 가능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전북이니까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올림픽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도시끼리 연대가 가능합니다. 고비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올림픽!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선도 협력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산업 혁신인프라 관계기관 4차 회의…국가종합실증 연구단지 등 핵심 프로젝트 추진

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 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는 22일 전북테크노파크 대회의실 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혁신 인프라 10개 관계기관과 함께 국가예산 협력사 업 발굴 및 에너지정책 대응 방안을 논 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트럼프 정부 2 종합실증 연구단지 조성도 추진된다. 기 출범과 같은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각 기 관이 추진 중인 사업현황을 점검하며 국가예산 협력사업 발굴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도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다

전북자치도가 국내외 에너지정책 변 지기 위해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 터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등 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확고히 다

> 올해는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산업 지 원센터가 구축되며 재재생에너지 국가

배주현 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신 재생에너지 혁신 인프라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혁신적인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가 국내외 에너지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최준호 기자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본격 운영

道, RE100 실현 민·산·학·연·관 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크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 언스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운영계획 및 주요 아젠다를 논의했 다고 밝혔다.

는 2024년 5월 출범 이후 에너지정 책·수소·풍력·분산에너지 4개 분과 를 구성하고, 분과별로 혁신적인 에 너지솔루션 개발과 실행 방안을 논 의하며 활발히 활동해 왔다.

이번 운영협의회는 2024년 말 각 분과의 킥오프 회의를 마친 뒤 2025 년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목표와 실 행 아젠다를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 다. 또한 각 분과의 활동계획을 공 유하고 트럼프 정부 출범 등 국내외 에너지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도 논의했다. 이날 운영협의회에서 는 고창식품산업연구원 등 20개 신 규 참여기관에 가입증서를 전달하며

전북자치도는 22일 전북테크노파 RE100 얼라이언스 참여기관 확대와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앞으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 이언스는 ▲참여기관 확대(100개 이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상) ▲대선·총선 공약사업 발굴 ▲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 굴할 계획이며 ▲각 분과별로 사업 화 기술개발 등의 도전적 목표를 설 정하고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배주현 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전북자치도가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역 경제와 에 너지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겠다"며 "RE100 달성을 위한 글로벌 선도지역으로 자리 잡 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유관 기관 대상 성과공유회 개최

28개 농생명혁신기관 등 참석, 우수발굴과제 8건 선정·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특강 진행

전북자치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라승용, 김종훈)는 22일 전 북테크비즈센터에서 도내 28개 농생명 혁신기관과 대학 등 위원 100여 명이 참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전북자치도가 주최 하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주관 했으며 위원 간의 2024년 추진실적 공유, 전문가 특강, 우수 기획과제 보고 등이 진행됐다.

이오, 푸드테크, 새만금농생명, 반려동물・ 말산업 분과) 총 15번의 회의를 진행해 23 석한 가운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건의 기획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8건의 우수 기획과제(총 사업비 1천400억원)을 선정해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첨단 영장류 생명연구자원 보존연 구 인프라 구축(5년, 200억) 및 식품 숙성 DX(Digital Transformation) 기반 식품산 했다.

업 생태계 플랫폼 구축 사업(5년, 115억) 2024년 위원회 각 분과에서는(그린바 은 내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으로 반 영해 대응할 예정이며, 소규모 스마트 식 품 제조 모델링 기반 구축사업(5년, 80억)

> 이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노수현 원장은 'R&D로 펼쳐지는 농식품 산업의 변화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

특강은 미래 농식품 기술 선점의 중요 성과 전북 농생명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농생명산업 현 은 전북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 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운영 방안 개편을 계획 중이다"며 "현장에서 직면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술 개발 과 유관기관 신기술 적용을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신영대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경조사도 유급휴가로'



주당 의원은 22일 다. 경조사 휴가를 의 무적으로 보장하 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 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보도자료들 통해 "법성휴가 로 제기돼 왔다.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법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더불어민 가족 사망 등 경조사 휴가는 제외돼 있 경우 본인 5일, 자녀 1일을, ▲사망 시에

면 개인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해야 하 거나, 기업별로 상이한 경조사 휴가 제 도로 인해 휴가 사용 시 눈치를 보는 경 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조사 휴가의 법정휴가화 필요성이 지속적으

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일·생활 균형, 신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조휴가가 법정휴가가 아닌 기업들의 노동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급 해 경조사가 발생한 근로자가 휴가를 자율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노동 휴가 제도다"면서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유급으로 경조휴 자들이 경조사 발생 시 심적 부담과 동 현행법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 시에 직장 눈치까지 봐야 하는 이중고

정휴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결혼이나 신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의

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 따라서 노동자들은 경조사가 발생하 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 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3일의 휴가를, ▲ 자녀 입양 시에는 20일을 부여하도록

> 신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일과 가정 의 균형은 필수 가치다"며 "그러나 경 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 제2025-9호

순창군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소규모(3ha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에 대해 농지법 제31조의 2 및 동일법 시행링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소규모(3ha)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따른 해제 계획(안)

가.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일원

나, 목 적 : 소규모(3ta 이하) 농업진흥지역 정비

다. 해제사유 : 해당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절단된 3ta 이하 자투리 농지 해제

라. 근 거 : 「농지법」제31조、「농지법 시행령」제28조 제2항

마. 해제 계획(안) 내역

해제(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 113,574㎡

2.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1. 16. ~ 2025. 2. 7.(22일간)

3. 해제 필지조서 및 도면 열람 방법

○ 필지조서 열람 : 홈페이지 열람 [http://www.sunchang.go.kr/(고시/공고/입법)]

도면열람 :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방문 열람만 가능

4. 의견 제출

-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내에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담순로 1548)에 서면(우편 가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의사항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지담당자(호 063-650-51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

- 해제 대상 범위가 방대하여 개별통지가 어려우므로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장고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면 및 조서의 내용 중 향후 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 될 경우 최종 해제 고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승우 도의장,KGM 커머셜 현장 방문…일자리 사업 도약 기대

군산형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중 한 동을 각각 둘러보며 KGM 커머셜에서 다. 곳인 KG 모밀리티 커머셜 군산 공장 생산되는 차량 제작 과정을 살펴봤다. 의장은 이어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

이번 방문은 올해 본격적인 신차종 상품성을 체험했다. 기 위해 마련됐다.

수 있는 제1공장 생산라인과 자체 생 증대로 군산은 물론 전북 경제가 활기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이 22일 산 차량의 품질을 점검하는 품질관리 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

을 방문해 현장을 시찰하고 전기버스 이어 문의장은 업체 완성 차량인 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차 생산에도 희 생산 및 판로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 9M급 중형 전기버스를 직접 시승 운 망이 보이는 만큼 도의회도 이들 기업 전하며 주행 성능을 비롯한 전반적인 들이 비상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

소형버스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문 의장은 "직접 현장을 와보니 우 한편, KGM 커머셜은 지난 2023년 신호탄을 알리는 KGM 커머셜의 생산 리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겠다는 11월 에디슨모터스 인수 후 지난해 1 라인을 둘러보고 지원방안을 모색하 희망이 보인다"며 "자체 기술로 개발 월 전기차 협업기반을 구축한 뒤 9M 을 완료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양산을 중형버스 생산 및 판매 및 신차종 7M 문 의장은 이날 수출용 제품을 볼 시작한 9M급 전기버스의 계약 물량 소형버스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윤준병 의원, 정읍·고창 배수개선 사업예산 159억 확보

배수개선사업으로 총 159억3천6백만원 지구(사업비 90억), 고창 우평지구 (사업 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흥·백운 3· 평령 2 지구, △고창·강남·신 수립 후 최종 사업비가 확정된다. 했다.

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22일 올해 정읍 오금지구(사업비 120억), 고창 성내 전념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 64억), 고창 무장지구(사업비 56억) 등 안전한 영농기반 조성과 소득증대 기여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계속 사업비 4곳이 지정됐다 올해 국가예산 4억3천6 를 위한 필수 사업이다"며 "사업들이 문 로는 정읍·고창 11 지구, 평령·석우·용 백만원이 투입돼 기본조사 및 시행계획 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림·신평·송산·해룡지구에 25년 국가예 이번 사업을 통해 1천448ha의 정읍· 소통하고 지자체 등 관계 부처와 협력 산 155억(총사업비 1천103 억원)을 확보 고창 농경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 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상되며 집중 호우시 반복적인 침수피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 배수개선사업 신규 기본조사지구로는 를 겪었던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사에

윤 의원은 "배수개선 사업은 농민들의 영농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들과

/서울=김영묵 기자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

하 연구원)은 덕진공원~건지산

일대의 방문객 실태분석 및 정책

적 시사점을 담은 'JJRI 정책브리

프 제6호'를 발간했다고 22일 밝

이번 'JJRI 정책브리프 제6호'는

'통신 빅데이터 및 방문객 실태조

사를 활용한 덕진공원-건지산 지

속가능한 관광 전략과 시사점'을

주제로 덕진공원과 전주동물원,

어린이창의체험관, 한국소리문화

의전당 인근의 통신사 빅데이터

(2024년 10월~2025년 9월)를 분석

하고, 지난해 10월 전주페스타 기

간 중 덕진공원-건지산 일원 방문

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 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점

연구원은 또 방문객 설문조사

이 특징이다.

사회

를 통해 덕진공원-건지산 일원을

찾은 이유에 대해 ▲휴식 및 산

책 ▲관광명소·공연 관람 등이

주목적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자

가용을 이용한 방문객(전주시민

65.7%, 전주시 외 거주자 81.2%)

의 비율이 높아 주차 공간에 대한

연구원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

로 ▲관광객과 전주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관광 개

발 ▲교통·이동 및 관광편의성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덕진공

원~건지산 일원의 지속가능한 관

광 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최선

/김영태 기자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선 등을 제언했다.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했다.

전주시정연구원 덕진공원-건지산시사점제시

정책브리프 제56호 발간…지속가능 관광 발전 전략 담아

완산벙커, 문화관광시설로…52년만에 시민 품으로

10개 콘텐츠룸 등 15개 공간으로 구성, 색다른 볼거리·즐길거리 제공 기대···2월 5일 개방 예정

과거 충무시설로 사용됐던 전주시 완 산동 완산벙커가 문화의 옷을 입고 52년 만에 시민 품으로 되돌아온다.

더 스페이스'(이하 완산벙커)로 재탄생한 완산벙커가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2월 5 하고, 지난 2023년부터 기반시설 조성 및 일부터 일반시민과 관광객에게 전면 개 콘텐츠 구축을 추진해왔다. 이후 지난해 방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완산벙커는 과거 전시 상황을 대비해 군·경찰·도 지휘소가 들어가서 지휘할 다. 수 있도록 1973년에 조성된 땅굴형 방공 호로, 복도에 여러 방이 연결된 개미굴 형태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 특한 구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방공호로 사용되던 완산벙커는 지난 2005년 전북특별자치도청이 효자동으로 화로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이전한 뒤 용도를 완전히 상실했으며, 고 구마 저장고 등으로 활용되는 등 버려진 시설로 남겨 있었다.

치와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 문화관광시 설로 재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문화 체육관광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 기본 계획 수립 연구대상지 공모사업'에 지원

한 것을 시작으로 완산벙커의 활용 방안 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폐쇄된 방공호 전주시는 문화관광시설인 '완산벙커 와 연결된 멀티버스를 비밀요원(관람객) 이 탐험한다'는 주제의 시나리오를 확정 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 나서왔

>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는 미디어아트 를 활용한 10개의 콘텐츠룸 등 총 15개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표 콘텐츠인 '차원의 문'의 경우 LED 모듈과 거울을 활용해 시시각각 변하는 화려한 빛의 조

시는 본격적인 개관에 앞서 지난 20일 부터 22일까지 전주문화재단과 전주시 이에 시는 완산벙커의 문화적 보존 가 직원, 완산동 지역 학생(완산초·곤지중) 등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에 나서기도 했

> 시는 시험 운영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 을 검토하고, 시설 등 관람환경 개선을



전주시는 문화관광시설인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로 재탄생한 완산벙커가 시험 운영을 거 쳐 오는 2월 5일부터 일반시민과 관광객에게 전면 개방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완료한 후 오는 2월 4일 정식 개관식을 갖고 오는 2월 5일부터는 시민들에게 시 설을 개방할 예정이다.

완산벙커는 전주시가 직영 운영하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이다.

입장료는 ▲성인(19세 이상)1만 원 ▲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소년(13세~18세)8000원 ▲어린이(4세

~12세)5000원이며, 전주시민과 20인 이 상 단체관람객은 2000원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의 개관이 전주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전주 관광의 활력을 불어넣는

/김영태 기자

검찰, 정읍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1천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 소된 이학수(65) 정읍시장의 파기환 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천만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은 1심, 2심에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제3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시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대로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이같 돼 직을 상실한다. 이 요청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를 앞둔 2022년 5월 TV와 라디오 토 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 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 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가 해당 공 원의 국가정원화 추진을 공약한 배경 에 사적인 개발 이익이 있다는 취지였 달 19일로 지정했다.

김 후보 측은 이러한 의혹 제기가 허위라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선거와 관련 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그러나 대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들 은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 다"면서 이 시장의 당시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면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시장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대 법원의 파기환송에 진심으로 감사드 린다"며 "선처를 해 주신다면 정읍시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선고 기일을 내

/정읍=김정인 기자

전주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위한 금융지원 나서

신용등급 6등급에서 10등급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등에 3년간 연 3% 이자지원으로 부담 완화

을사년 새해를 맞아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집중하고 나선 전주시가 미소금융 전북 전주법인과 손을 맞잡고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도 지원키로 했 씩 이차보전에 나설 계획이다. 다.

전주시와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전 북전주법인,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 시장과 진대권 미소금융 전북전주법인 이사장, 유장명 전주시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신용・저소득 소상 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 한 전주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대상에 약을 체결했다.

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저소 시각지대에 있었던 소상공인들에게 큰 득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해 경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이자를 3년간 3%

또, 미소금융 전북전주법인은 지원대 상자에 대한 상담 및 대출 실행에 나서 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더 많은 소상공인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쓸

특히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인해 기존 신용등급 1~7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 제외됐던 신용등급 6~10등급과 수급 이번 업무 협약은 경기침체와 소비 위 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 금융지원의

영 회복을 돕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전북전 는 총 1700억 규모의 전주시 희망더드림

주법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추 진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로, 협약 체 결 이후 즉시 본격적인 대출 실행 및 이 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3%를 3년간 지원하며, 올해 총 30억 원 규모의 대출(개인 한도 2,000만 원)을 실 행할 예정이다.

대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서민금융 진흥원 미소금융 전북전주법인(063-285-403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이와 관련 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승 이자보선 지원사업을 주진하 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23년과 지난해에 말했다.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4,000여 소상 공인을 지원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기(既)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출이자의 연 대출자에 대해 8년간 3% 이자 지원 및 원금 상환을 연장해주는 희망더드림 안 심연장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이차보전 지 원사업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소 상공인들이 경영 회복의 기회를 마련되 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전주시가 강한 경제도시로 나 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미소금융 전 묵선수법인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김영태 기자

다.

전주시와 전주지역자활센터는 설 터 생일밥상과 명절밥상을 지원해 왔

7개 응급의료기관 및 병·의원 335개·약국 235개 문 열어···보건소 비상진료 상황실 설치·운영도

전주시, 명절 연휴 기간 빈틈 없는 '응급진료체계' 가동

에도 응급환자 발생 및 진료 공백에 대비 해 빈틈없는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키로 백 및 진료 불편 최소회를 위해 총력을 기 했다.

특히 올해 설 명절에는 24시간 응급실 을 운영하는 전북대병원·예수병원·대자 인병원·전주병원·호성전주병원·고려병 원·자인플러스병원 등 전주지역 7개 응 급의료기관과, 335개 병·의원, 235개 약 3곳(대자인병원, 전주다솔아동병원, 해맑 국이 문을 열 예정이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이 같은 이다.

전주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 기간 내용을 골자로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 지의 설 명절 연휴 동안 시민들의 의료공 울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먼저 올해 설 명절 연휴 기간 ▲7개 응 급의료기관 ▲335개 병·의원 ▲심야약 국 3곳(사랑약국·염약국·인후대형약국) 을 포함한 235개 약국 ▲달빛어린이병원 은연합소아청소년의원)이 문을 열 예정

또한 시는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소, 3개 보건진료소의 교대 운영을 통해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비상 진료를 실시 생에 대비해 비상대응반도 운영한다. 이

소 비상진료 상황실을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에 각각 설치·운영하고, 응급 의료기관별 전담책임관을 통해 현장 상 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또, 진료 건소 누리집, 완산·덕진구청 누리집에서 가능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 및 응급 확인할 수 있다. 의료체계 점검 등 시민의 의료 이용 불편

동시에 전주시보건소는 감염병 집단발 를 위해 보건소는 감염병 보고 및 신고 이와 함께 시는 설명절 연휴 기간 보건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설 명절 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 국 등에 대한 정보는 전주시 누리집의 '설명절 연휴 통합정보 안내'와 전주시보

/김영태 기자

전주시-전주지역자활센터, 명절 음식 나눔 추진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 '노인 의료-돌 다. 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영양더하기 대 눔 행사를 진행한다.

을 통해 명절 동안 느낄 수 있는 적적 함을 훈훈한 온기로 채워주기 위해 마 련됐다.

지사회적협동조합도 오는 27일 통합 돌봄 대상자 100여 명에게 설날 행복 밥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다"고 말했다.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2020년부

이와 함께 진북동 도토리골 새뜰마 상 노인에 대한 명절 음식 꾸러미 나 을 주민돌봄센터도 설 명절을 맞아 통 합돌봄 대상자 및 취약계층 노인들이 이번 행사는 명절을 홀로 보낼 지역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식료품 사회 노인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 꾸러미와 백미 등을 5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식료품 꾸러미는 전주시사회 복지협의회 주민돌봄센터(떡국떡, 사 또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 골곰탕, 만두 50세트), 독지가의 기부 업의 또 다른 수행기관인 전주의료복 물품(계란 50판, 백미) 등 지역사회의 온정이 모여 제작됐다.

이금안 전주시 노인복지과장은 "명 절을 맞아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을 한 전주의료사협은 지역주민과 의료인 번 더 찾아뵘으로써 돌봄과 나눔의 가 이 협동해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함 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

/김영태 기자

전주시, 주거취약계층 주택관리 집중 사업 '해피하우스' 추진

전주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겨울철 주 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특별 안전 점검과 연중 각종 시설물(위생, 가스, 전 범사업지구로 선정된 이후 시민 만족도 기 등) 안전 점검 및 보수를 지속 추진하 등을 감안해 현재 총 3개의 해피하우스 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시는 겨울철에 취약한 단독·다 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 외부로 노출된 수도 배관의 동파 방지 서 이 추진됐다. 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09년 10월 인후 2동 지역이 전국 최초로 해피하우스 시 센터(완산·인후·팔복)를 운영하고 있다.

해피하우스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 내 세대·연립주택에 거주 중인 장애인과 65 건축·위생·전기설비 점검 및 보수와 수 세 이상 고령자, 중위소득 60% 이하 기 리에 필요한 간단한 공구를 무상으로 대 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신청 가 여해주는 사업으로, 시는 2010년 이후 현 재까지 총 4만2367세대를 대상으로 총 아 개별 LPG를 사용하는 가구의 가스 점 21만7506건의 주택 점검 및 보수를 실시 검을 통해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했다. 또, 5,073건의 공구 대여 등의 사업

해피하우스 서비스는 주소지 인근 해 산센터 1577-6514, 팔복센터 211-7740)



피하우스센터(인후센터 1577-2589, 완 를 통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및 간부 공무원들, 복지시설 방문

전주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항을 청취했다. 노인요양시설을 찾아 시설 관계자와 생 활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롯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이 선덕효심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 지환경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 다고 밝혔다.

는 종사자와 생활인들이 훈훈한 명절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며 애로·건의

이 자리에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은 시설 생활에 불편함이 없 시는 22일 진교훈 복지환경국장을 비 는지 세심히 살피며 따뜻한 위로와 격 려의 마음을 전했다. 진교훈 전주시 복 한 정을 나누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설 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설 생활인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웃사 날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랑을 실천하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쓸쓸한 명절을 보내지 않도록 취약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시 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발맞춰 나가는

/김영태 기자

이날 장보기에는 김 지사를 비롯

해 정읍시 지역구 도의원들도 참여

해 명절을 앞둔 샘고을시장에 활기

이흥구 상인회장은 "샘고을 시장

축산물·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김관영 도지사는 "전통시장에서

를 경험하며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느끼시기 바란다"면서 "전통시장을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

/정읍=김정인 기자

를 띄게 하는 데 힘을 보탰다.

전북도, 전통식품 판로 개척 맞춤형 지원

10억 원 규모 지원사업 추진…도내 우수 전통식품 기업 20개사 모집 판로 개척

맞춤형 지원·마케팅 전략·전문가 컨설팅 제공해 효과적 성장 도모

전북자치도는 도내 전통식품 기업들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억 원 규모의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 획이다. 또한, 단순 마케팅 지원을 넘어 진한다.

도는 전통식품 기업들이 우수한 품질 의 제품에도 불구하고 판로와 홍보 부 맞는 전략을 수립해 효과적인 마케팅을 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지원할 예정이다. 맞춤형 개별지원 및 온·오프라인 프로 모션을 제공해 왔다. 올해도 20개 업체 를 선정해 제품개발, 디자인 패키지 제

쇼핑몰 프로모션, 국내 대규모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 1:1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각 기 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별 특성에

을 통해 8회에 걸쳐 주요 박람회에 참 가하고 약 17억7천2백만원의 매출을 달 작 등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온라인 성했으며 온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3억7

히 전북 깐부슈퍼, 혼밥·혼술상회 등 전 북만의 특색있는 공동판매관을 구성하 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판매 마케팅 전 진할 계획이다. 략으로 소비자와 바이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 전북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참여 기업 모집은 오는 2 지난해에는 오프라인 공동 프로모션 월 19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공고는 전북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 업체는 심사위원회에서

천8백만원의 매출 성과를 거두었다. 특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3월 중 최 종 20개사를 선정하고 1:1 전문가 맞춤 형 컨설팅 실시 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

>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도 내 전통식품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신시 장 창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참여기 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정혜민 기자

전주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위한 금융지원 나선다

신용등급 6~10등급의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등에 3년간 연 3% 이자지원으로 부담 완화

을사년 새해를 맞아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나선 전주시가 미소금융 전북 전주법인과 손을 맞잡고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도 지원키로 했 다.

전주시와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전북전주법인,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는 22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 주시장과 진대권 미소금융 전북전주법 인 이사장, 유장명 전주시소상공인연합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신용·저소 득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경기침체와 소비 위 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저 소득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해 경영 회복을 돕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 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득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이자를 3년간 다. 3%씩 이차보전에 나설 계획이다. 또, 미 소금융 전북전주법인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대출 실행에 나서고, 소상



전주시가 미소금융 전북전주법인과 손을 맞잡고 저신용 저소득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 을 지원한다.

공인연합회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저신용・저소 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쓸 예정이

> 특히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인해 기존 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등급 1~7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

상에서 제외됐던 신용등급 6~10등급과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 금융지 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상공인들에

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전북 안심연장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로 한 전주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대 전주법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로, 협약 체결 이후 즉시 본격적인 대출 실행 및 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출이자의 연 3%를 3년간 지원하며, 올해 총 30억 원 규모의 대출(개인 한도 2,000만 원)을 실행할 예정이다. 대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전북 전주법인(063-285-4031)으로 문의하 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23년과 지난해 에는 총 1700억 규모의 전주시 희망더 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4,000 여 소상공인을 지원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는 장기화된 경 기침체 속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기 (旣) 대출자에 대해 8년간 3% 이자 지원 및 원금 상환을 연장해주는 희망더드림

/김영태 기자

전주시, 민생지원금 미끼 스미싱 주의보 발령

김관영 지사, 정읍 전통시장서 설명절 장보기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홍보활동 및 온고을상품권 환급 행사 홍보

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고금리·고 에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간 농

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시장 상인 행사가 진행되니 많이 찾아주시길

김관영 도지사는 시장상인회와 간 다양한 할인 혜택과 풍성한 볼거리

등 주요 성수품들을 구입하면서 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김관영 도지사는 설 명절을 앞두 며 덕담을 나눴다.

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 22일 정읍 샘고을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와 함께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 홍보활동을 추진

장보기 행사는 내수 침체 장기화

물가의 영향으로 위축된 지역 상권

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뒤, 온누리상품권으로 사과, 닭고기

민들의 겪는 물가 부담을 직접 체험

하고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 다.

바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했다.

시 관련 사례 수사기관에 고발 및 시민 홍보 강화 예정

전주시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 로 유포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강 침이다. 력히 대응키로 했다.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인터넷 블로그 · 하게 차단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 카페에서 개인정보를 유도하는 사례들 고, 시민들이 허위 정보에 현혹돼 피해 이 발견돼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유출 를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22일 밝 혔다.

다양한 유형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시는 인터넷 또는 문자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허위 정보를 차단

허위 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후 무작위 현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

또한 시는 무분별한 온라인상 유통이 시는 최근 시민들이 현혹되기 쉬운 나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최대한 신속 우려 등 시민들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활용한 대시민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 정이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인터 특히 거짓 정보를 게재한 블로그·카 넷 허위 글과 스미싱이 연계된 피해 발 페의 경우 민생지원금 대상자인지를 확 생이 우려되는 만큼 시민들이 동요하지 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민들께서 도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주의를 기 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새만금 식품허브, 道와 세계 최초 '육상 김 양식' 추진…전략회의 개최

새만금개발청, 전북자치도-풀무원과 함께 지속 가능한 김 양식 기술 개발 및 수출 확대 모색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 21일 새만금개발청 대회의실에서 세계 최초 육상 김 양식 사업을 추진하는 풀 무원과 전북자치도, 군산시와 함께 성공 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 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주관 '지속가 능한 우량 김 종자생산 및 육상양식 기 술개발' 공모에 참여하는 풀무원의 테스 트베드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 으로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김 수출 10억 달 러 확대를 목표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 산 불안정, 글로벌 규제 강화 등 김 양식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육상 김 양식 기술과 표준매뉴얼 개발로 극복하고, 새 (1.13~2.17)를 추진 중이다. 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자 공모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1일 세계최초 육상 김 양식 사업을 추진하는 풀무원과 전북자치 도, 군산시와 함께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전북중기청, 전통시장 장보기 나눔 행사

수출가공종합단지에서 추진 중인 '새만 이날 풀무원은 현재 새만금 수산식품 금 고부가가치 김 융·복합 생산·기지'

구축 사업의 진행 상황을 소개하고, 연 내 착공과 준공 등을 위한 유관기관들 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윤 풀무원 상임자문(전(前) 기술 연구원장)은 "풀무원은 2021년 세계 최 초로 김 부문에서 'ASC-MSC' 인증과 'ASCoC'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면서 미래 식품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자신했 다. 또한 "최고의 기술을 바탕으로 새만 금에서 어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육상 김 양식 상생모델을 만들어 어업인이 김을 양식하고, 풀무원은 이를 구매해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부터 풀무원과 협력해 온 지자체 관계자들도 육상 김 양식 사업 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북은행,다문화아동들겨울방학캠프후원금1억원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 기업청(청장 안태용, 전북중기청)은 민 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소비 위축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 따뜻한 명절의 의미를 더했다. 성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전통시 밝혔다.

래내시장과 22일 완주 삼례시장에서 진 행됐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80여 명 확산하고 소비 촉진에 기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

용해 지역 특산품, 과일 등을 구매한 뒤 사회복지시설 국제재활원(완주군 소재) 에 방문해 구입한 물품들을 전달하며

이 밖에도 설 명절 전통시장에서 제 장 장보기 및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수물품 등을 구마해는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21일 전주 모 존 10%에서 15%로 확대(25년 2월10일 까지)한다.

또한 구매 한도를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역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의 이 참여해 전통시장의 명절 분위기를 기회를, 소비자들에게는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 이 겨울방학을 맞은 전주지역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북은행은 22일 전주시장 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백종일 전북 은행장, 오현권 전북은행 부행장, 유기

석한 가운데 전주지역 다문화 아동을 위한 '2025 多(다)채로운 多(다)문화캠 프 다다캠프' 지원 후원금(1억 원) 전달 식을 가졌다.

전북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을 위해 이번 겨울방학 기간 중 자칫 소 외될 수 있는 전주지역 다문화아동들에 게 다양한 교육 및 문화 체험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시와 전북은행은 전주지역 다문화 초등학생 35명과 중학생 35명 등 총 7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이날 기 탁된 후원금은 이달 말 정읍시에 소재 /최준호 기자 용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장 등이 참 한 JB금융그룹 아우름 캠퍼스에서 굿네

LX, 관리자 워크숍 개최···경영 혁신·위기 돌파 의지 다져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 를 견디면 더 나은 환경으로 변화될 것 소.LX공사)가 22일 국토정보교육원에 서 본사 임원과 간부, 지역본부장, 지사 장 등 관리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내 경영 정상화하라'를 주제로 특강을 데 '2025년도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 진행했다. 어 사장은"부동산 경기 침체 다.

이번 워크숍은 'LX 위기에 대한 반성, 그리고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 아래 어명소 사장의 특강과 전문가 특강, 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론 등으로 마련됐다.

'위기: 도전과 응전'을 주제로 특강에 처했던 MBC 사례를 들어 "조직이나 구 고 강조했다. 성원들이 만족감에 젖어 세상 변화에 영진 탓으로 돌리는 심리가 강해지는데 이는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유출, 사기 저하 등에 유의해야 한다"면 서 "특히 명확한 목표 설정과 공유, 중 다. 장기 로드맵 제시를 통해 어려운 시기

이라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LX공사 어명소 사장은 이날 '5년 이 로 지적측량 수요가 급감하는 것은 현 실이나 LX가 미래 지적측량 시장의 변 화 예측과 대비에 소홀했던 점은 반성

이어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강도 높은 혁신 나선 MBC 허진호 PD는 경영 위기에 노력을 토대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특강 이후 분임토의에서는 LX 미래 둔감해지면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경 에 대한 고민과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LX공사는 이날 도출된 의견들을 토 대로 경영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민에 이를 위해 "지속적 대화와 타협, 인력 게 신뢰받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 거 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

/최준호 기자

이버스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3박4일 일정으로 겨울 방학 캠프를 진행하는 데 사용될 예정 이다.

이에 앞서 전북은행은 지난 7월에도

여름방학을 맞은 전주지역 다문화 아동 들을 위한 여름방학 캠프 지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원단체, 교육감 당선무효형 놓고 의견 '분분'

전교조 전북지부·전북교육연대 "죄를 인정하고 자진 사퇴" 전북교총·전북교사노조 "교육 정책 혼란 우려"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선 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제라도 사실을 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1일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전북교원단체들의 의 했다. 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재판이 시작 "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300 다"고 촉구했다. 된지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2심 결과가 만 원보다 많은 형을 법원이 선고한 것 나왔다"며 "34명의 초호화 변호인을 선 은 그만큼 선거법 위반이 무겁다는 반 임한 결과 임기 절반이 넘는 시간 끌기 증"이라며 "전북교육연대는 재판부가 를 했지만 결국 드러난 사실을 1심과 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합당한 판결을 른 '유죄' 선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폭력 가해자를 교육감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해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지난 야 할 것이며 스스로 교육감직을 내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된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 민연대(전북교육연대)'도 성명을 통해 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의 인권문제와 존중한다.

학교폭력에도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동료 교수를 폭행하 동하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 고 밝혔다. 전북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 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며 "서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도민들에게 사죄 하고 교육감직에서 당장 사퇴하길 바란

총)와 전북교사노조의 입장은 달랐다.

큰 500만 원 선고를 한 재판부의 판단은 다"고 말했다.

다만 전북교육이 방향을 잃을 것에 대 한 우려가 크다"며 "전북교총은 대법원 고도 당선을 위해 거짓말로 도민을 기 이 실체적 진실의 시비를 잘 가려 합당 놓음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 만했으며, 당선된 후에도 뻔뻔하게 행 한 사법적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 전북교사노조도 성명을 통해 "교육감 이라는 위치는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로서 더욱 엄격한 도덕·윤리적 자 질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며 "그러 반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 나 이러한 사법 리스크로 인하여 전북 의 학력을 신장하고 무너진 교권을 확 전북교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선고에 립하고자 하는 교육감의 행보가 중단될 대해 검찰의 구형인 벌금 300만 원보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

> > /최성민 기자

서 교육감 "대법서 진실 밝히겠다"

당선 무효형에 전북 교육가족과 도민에게 송구 입장문 발표

김정기 전주교육장, 2036 올림픽 유치 챌린지 동참

➡ 실력과 바른 안

도민의 뜻모아! 참모아!

하게올림픽은

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김정기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김왕규 군산교육지원

장, 민완성 전북교육청교육연수원장을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의 항 다. 소심 선고를 받은 서거석 전북교육 감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먼저 이번 판결로 인해 실망 을 드리게 돼 전북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이어 전날 2심 판결 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재 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상고했고 반드시 대법원에서 꼭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청교육장이 지난 21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

김정기 교육장은 서 교육감의 지목을

받아 이날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의

김 교육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

픽 유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선수들이 최

고의 기량을 겨루는 경기들을 우리 학생 들과 도민들이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하

는 모습과 경기장 위 감동의 순간을 현장 가까이에서 느낀 경험은 전북특별자치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

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반인 도민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서 교육감은 "또한 앞으로도 추호 의 흔들림 없이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1일 광주고법 전주재 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 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성민 기자

- 전주교육

2036

새만금희망태양광,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금 3억 기탁

가정형편 어려운 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목적··· 도내 중·고생 중 학교장 추천 통해 600명 선발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이현웅)은 지난 21일, 가정형편이 어려 구역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도민에 운 도내 중·고등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게 환원하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25일 ㈜새만금희망태양광으로부터 3억원의 기탁금을 전달 받았다.

기탁식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탁금 3 억원은 올해 상반기에 '새만금희망태양

중·고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600명을 예정이다.

이현웅 원장은 "장학금은 어려운 경제 말했다.

이번 기탁금은 새만금 육상 태양광 1 광'특별지정 장학금으로 지급되며 도내 여건 속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에 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사회 각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선발 지원 할 와 협력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소민 기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순조롭게 추진'

2024년 12월말 기준 공약이행률 79.1%… 목표율 64.9% 대비 121.9% 초과 달성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공약 동체 78.3%의 이행률을 보였다.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면 2024년 12월말 기준 서거석 교육감 성과를 보여주는 결과다. 의 공약이행률은 79.1%로 지난해 목표 율 64.9% 대비 121.9% 초과 달성했다.

분야별로는 미래 77.2%, 책임 74.2%, 미도래 1개 등이다. 안전 91.9%, 자치 72.2%, 협력 86.9%, 공

2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 달성한 것으로, 2년 반 동안의 사업추진 무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176개 공약이행 세 부사업 중 완료 71개, 정상 추진 104개, 로 구성해 평가과정에 있어 주민참여를

력지원센터 운영 ▲전북 에듀페이 지원 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6대 분야 모두 지난해 목표율을 초과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확충 ▲학교업

약관리위원회 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 제도적으로 보장했고, 누리집 보완으로 주요 완료 사업은 ▲교육지원청 내 학 직관성을 향상해 도민들이 쉽게 공약이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사업 본연의 목 표를 달성하면서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 공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교육가족과 도 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전북교 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최성민 기자

전북대 김동명 박사. 세계적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취업

도가 한걸음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 청 교육장,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



학부 통신 회로 및

이어 "우리의 관심과 지지로 더 활기찬 지목했다.

인 반도체 대기업인 브로드컴에 취업하 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국 팹리스 기업인 브로드컴은 글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다. 벌 ASIC(주문형 반도체) 대표 기업이다.

를 돌파했으며,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 종 선발됐다. /최성민 기자 체 TSMC와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

전북대학교 김동 이도 제치고 시가총액 순위 8위를 차지 명 박사(전자정보공 한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이다.

김 박사는 전북대학교 전자공학부를 시스템 설계 연구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 🖿 실, 지도교수 임동 🛮 을 밟으며 CMOS RF 및 아날로그 송수

> 또한 제 26회 삼성전자 휴먼테크 논문 대상 회로설계 분야 동상을 수여하는 등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브로 지난해 12월 기준 시가총액 1조 달러 드컴 RFIC 개발 부서에 연구원으로 최

/최성민 기자

/최성민 기자

2024회계연도 결산업무 연수 실시… 결산업무 담당자 60명 대상

석)은 지난 22일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 취 결산업무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용으로 진행됐다. 지원청 소속 결산업무 담당자 60여 명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업무 연 수를 실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 연수는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시기에 맞 산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내 로 완료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이 용 교육 ▲결산서 작성 요령 안내 등 결 는 6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승인 심사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높일계획이다. 연수는 ▲결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 은 4~5월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침 전달 ▲K-에듀파인 결산시스템 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오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결산 관리의 전문성을

또한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군산시보건소, 65세 이상 '찿아가는 결핵 검진' 실시

군산시보건소가 결핵 발생률이 높고 감 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무료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가 중 결 핵 발생률 2위('23년 기준)로 결핵 발생·사 망률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대한결핵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와 함 께 하는 '찾아가는 결핵 검진'은 경로당, 노 인복지관, 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 이용 시 설로 결핵 이동 검진 차량이 직접 찾아가 진행된다.

따라서 흉부X선 촬영부터 판독까지도 실 시간으로 진행되며, 결핵 의심 소견이 보이 거나 기침이나 가래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객담검사를 추가로 하게 된다. 객 담검사 결과 후 결핵이 확진되면 결핵 치료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즉각적인 진료와 복약 관리가 이루어지며 결핵 산정 특례가 적용되어 무료로 치료를 받게 된다.

보건소는 2025년에도 2월부터 결핵 이동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찾아가는 결핵 검진 을 희망하는 시설이나 기관은 보건소 결핵 관리실(454-5015~7)에 신청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명절 안전하고 건강하게" 익산시, 비상 진료 대책 운영

익산시가 설 명절 응급환자와 시민들의 의 료 편의를 위해 비상 진료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당

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 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당직 의료기관은 보건소를 포함해 지역 병의원 107개소이고, 휴일지킴이 약국은 59개소가 운영된다. 원광대학교병원과 익 산병원은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응급진 료체계를 가동한다.

지정된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 국 현황은 익산시 또는 보건소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 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 시도콜센터 (120) ▲익산시 당직실(063-859-3222, 4222) ▲보건소(063-859-4839) 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 료정보제공'을 설치하면, 익산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지역의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 킴이 약국을 조회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보건소, 설 연휴기간 응급진료체계 운영

군산시 보건소가 설 연휴 기간 시민들과 귀성객들을 위한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설 연휴 기간인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 운영토록 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응급진료상황 실을 설치·운영하며, 응급진료기관 현황 점 검,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안내 및 운영현 황 모니터링 등도 담당한다.

먼저 연휴 기간 중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은 상시 응급환자 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평소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게 했다.

또한 보건지소·진료소, 병·의원 및 약국 305개소는 날짜별로 운영하여 설 연휴에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실시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중 진료에 대한 사항은 응급의 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콜 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 센터(120), 군산시청 및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응급 의료정보제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인구 정책 '실제 효과로'

3개월여 만에 인구 397명 증가·지난해 출생아 2023년 대비 6.18% 증가

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분위기 를 조성하고 있다.

시는 기존에 기획했던 '결혼축하금' 대 신 추진하는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인구 정책에서 효 괴를 내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난해 초 익산시는 인구 유출 방지 와 결혼 장려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 는 만큼 재차 심층 검토를 실시한 결과 투입 예산 대비 청년 인구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깊은 고민 끝에 시는 단편적인 결혼 축하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정 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는 전출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 혼인하거나 익산으로 전입한 신혼부부

드 아파트가 입주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 결과 세대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전국 최대 규모의 주택 자 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과감하게 시 행하게 됐다.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 구매 자금 과 전세보증금으로 나눠 연중 진행된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 론(Loan), 신생 아 특례 대출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주 택 담보 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이자를 반기별로 현금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19~39세 익산 거주 청년은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에서 연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후

익산시는 '주거 지원 전략'을 통해 젊 지하는 '주택 분야'에 초점을 두기로 했 와 청년은 대출 잔액 2억원 한도에서 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 다. 최근 지역 내에서 신축 대단지 브랜 연 최대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또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시는 청년 자산 형성에 기여 하는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년이 익산에 정착하도록 유도 하고 있다. 실제 그간 전북권역 내 출퇴 근이 가능한 인근 지역으로 유출됐던 인구를 익산으로 유입한 것으로 나타

> 지난해 9월부터 사회적 증가 현상이 시작됐으며 12월 말 주민등록상 인구 는 총 26만 8,001명으로 3개월 전인 9 월 말(26만 7,604명)에 비해 397명 증가 하는 뜻깊은 성과를 도출했다. 출생아 수도 늘고 있다. 익산에서 태어난 아이 는 2023년 923명에서 지난해 980명으 로 57명(6.18%) 증가했다.

> >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장애인노인생산품판매행사개최

지난 22일, 장애인·노인생산품 판매시설 9개소 참여

익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2일 시청 1층에서 '중증장애인·노 인 생산품 판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취약계층인 중증장 애인과 노인이 생산한 다양한 물품 을 판매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판 로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판매 현장에는 해피드림, 동

그라미플러스 등 장애인생산품 판 매시설 7개소와 원광효도마을시니 어클럽, 익산시니어클럽 등 노인생 산품 판매시설 2개소가 참여했다.

주요 제품으로 육포, 누룽지, 참기 름, 김, 홍삼 등 명절맞이 선물 세트 를 선보였으며, 뛰어난 품질과 합리 적인 가격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내장산국립공원 '한국관광100선' 선정

올해로 7회째 6회 연속··· 단풍 넘어 사계절 내내 자연·역사 아우르는 매력 가득

국내 대표 관광지 내장산국립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 정하는 '2025~2026 한국 관광 100선'에 6회 연속 이름을 올리며, 대한민국 대 표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한국 관광 100선'은 한국인과, 외국 인이 꼭 방문해야 할 대한민국 대표 관 광지 100곳을 2년마다 선정하는 사업 으로, 올해로 7회째다. 내장산은 단풍 명소로서 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자 연과 역사를 아우르는 매력적인 관광 지로 평가받았다.

시는 내장산국립공원의 6년 연속 관 광100선 선정은 적극적인 관광자원 개 발과 홍보 활동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간 내장산을 중심으로 다양 한 관광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며 관 광객 유치에 힘써왔다. 지난해는 내장 기반 사업도 계속되고 있다. 내장산과



산 특화 먹거리 개발 일환으로 스타셰 프 이원일과 협업해 정읍의 지역 식재 료를 활용한 '버섯돈육칼'과 '등뼈버섯 콩탕'을 출시했다. 또 트레킹 전문여행 품을 개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한,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연계한 관광지 개발의 일환으로 내장 호 인근 문화광장을 복합체험 관광거 점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해 부터 문화광장 순환열차를 운영한데이 사와 손잡고 '내장산 히든로드'라는 상 어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기적의 놀이 터 조성 등 가족 친화형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식품기업은

정읍시,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추가 모집

시설·스마트 장비 지원, 상품 개발·판로 확대 맞춤형 마케팅 제공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인 기업 이다. 공모 분야는 ▲농식품기업 맞춤 형 지원사업 ▲농식품기업 스마트 제출하면된다. HACCP 지원 ▲창업 식품기업 지원으

로 구성됐다. 시는 시설 노후화나 자본

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기

업에 필요한 시설·스마트 장비를 지원

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달 7일까지 '농식품기업 지원

체 및 식품기업으로 주원료로 국내산

(도내) 농산물을 사용하는 기업 중 운

일 밝혔다.

정읍시는 지역 농식품 산업의 경쟁 하고 상품 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맞춤형 마케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

사업(2차 공모)'을 진행한다고 지난 22 역 농식품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 사업 대상은 지역 내 농업생산자단 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 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마련하겠 영 실적이 1~3년 이상이고 최근 3년간 다"고 말했다.

>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사 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유통과 농식품 산업팀(063-539-621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설 명절 맞이 민생안정 종합대책 가동

재난·재해, 의료·방역, 물가, 교통, 생활환경, 상하수도 등 7개 분야 종합상황반 운영

정읍시가 설 명절을 맞아 시민과 귀 비를 마쳤다. 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연휴를

대책을 가동한다. 재난·재해, 의료·방역, 물가, 교통, 생활 환경, 상하수도 등 7개 분야의 종합상 황반을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 응할 방침이다.

책반과 가축전염병상황실을 운영해 긴 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 25일~2월 2일) 동안 비상진료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정읍아산병원을 포함한 시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의료기관 119곳과 약국 54곳 등 총 182 개소가 참여하며, 정읍아산병원은 연휴 기간 내내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 능하다. 보건소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고 발생 가능한 민원 사항에 신속히 대 을 운영해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 이 약국을 안내하고 운영 여부를 점검 우선 재난·재해와 관련해 전기·가 한다. 관련 정보는 시청 홈페이지, 응급 스·화재 및 가축전염병 등의 사고에 대 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www.e-gen. 비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재난·재해 대 or.kr), 119구급 상황관리센터 등을 통

이와 함께 높아진 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 또한, 시 보건소는 설 연휴 기간(1월 급,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설맞이 직거 래장터 운영 등 다양한 민생안정 방안 도 추진한다.

연휴 기간 생활쓰레기는 오는 26일 (일)과 29일(설날)을 제외한 날에 정상 수거되며 생활환경대책반과 상하수도 대책반을 운영해 긴급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대책 반도 가동된다. 정읍역, 터미널, 샘고을 시장 등 상습 정체 구간과 병목 지점에 교통지도 단속 요원이 특별 배치돼 귀 성객들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

/정읍=김정인 기자

새로운 정읍, 2025년 달라지는 122개 정책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확대·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등 시민 삶의 질 향상

삶을 변화시킬 122개 주요 사업을 새 정이다. 복지·건강·안전 분야에서는 출 롭게 선보인다.

정책 7개 분야 122개 사업(신규 39건, 확대 83건)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향상과 도시 발전에 나선다. 이 정책들은 ▲경제·산업(10건) ▲농업·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축산(31건) ▲문화·체육(2건) ▲복지· 확대 등 농업·축산과 청년 정책에서도 건강·안전(51건) ▲환경·산림(9건) ▲ 눈에 띄는 변화가 마련됐다. 주거·청년(11건) ▲행정·시민생활(8건)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산업 분야의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확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 대다. 총 800억원 규모로 발행해 침체 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

정읍시가 2025년을 맞아 시민들의 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 생축하금 지원 요건 완화와 한방 난임 시는 올해부터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지료비 지원 신설로 출산 친화적인 분 위기를 조성해 시민들의 출산과 양육

또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

달라지는 정책의 세부 내용은 시 홈 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제공되며 가장 주목받는 정책 중 하나는 경제· 책자로도 제작돼 지난 21일부터 시청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설 종합대책 추진… 지역 경제 안정 총력

물가안정·재낸재해·교통·의료진료 등 10개 반 운영··· 연휴 기간 필수 인원 50여 명 근무

책'을 추진한다.

교통·안전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7개 분야 42개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22 일 밝혔다.

시 직원들이 적극 동참한다. 시는 직원 들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명절 전 지급하고, 전통 시장 장보기 행사 특별기간을 운영한 통종합대책반 ▲악취대책반 ▲생활환

익산시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 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청 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종합대 구내식당 휴무 횟수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명절 전 리반 등 10개 반이 운영된다. 시는 물가·민생 안정, 취약계층 돌봄, 까지 재정자금 1,132억 원을 신속히 집 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

시는 민생 안정과 더불어 명절 연휴 우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익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오는 25일부 터 30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총괄반을 중심으로 ▲물 가안정대책반 ▲재난재해대책반 ▲교

경대책반 ▲도로대책반 ▲의료진료대 책반 ▲상하수도대책반 ▲일반민원처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 등 필수 인원 50여 명이 근무하며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에 힘쓴다.

시는 설 명절 나눔문화 확산과 취약 계층 돌봄에도 힘쓴다. 사회복지시설과 국가유공자를 위문하고,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와 결식 우려 아동에게 부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설명절 대비 가축전염병 차단 총력 축산농가 방문자제 · 축사 내외부 소독 · 농장 방역 수칙 준수 당부

병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가는 물론 귀성객과 시민 모두가 가 고 있다. 축질병 유입 차단에 적극 협조를 당부 하였다.

류인플루엔자 등 바이러스성 질병은 기온이 내려갈수록 전파 가능성이 높 아지며, 발생 치사율이 높고 복구에 상 당한 시일 소요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 차량과 사람의 통제 및 소독 등 차단 실을 일으키는 1종 국가 재난형 가축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질병이다.

지난해 9월 말경 강원도 동해의 농 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으로 신 장에서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 플루엔자는 이후 27건 발생했다. 예년

군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가축전염 에 비해 발생 시기가 약 2개월 앞당겨 진 만큼 정부는 전국적으로 농장 점검 이를 위해 시는 설 명절 기간에 축산 등 발생 및 전파 차단 조치를 추진하

군산시 역시 매개체 전파 위험성을 감안해 설 명절 전후 농장에 차량과 사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 람의 출입 통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민들의 행동 요령으로는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축산농 가는 ▲축사 내외부 소독 ▲농장 출입

마지막으로 의심축 발생 시에는 즉 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군-한국전력 연구원, 관광발전 협약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및 전력시험센터 교육·홍보 등 상호 협력

고창군이 한국전력 전력연구원과 명사십리 관광 발전사업과 전력기술 홍보협력에 손을 맞잡았다. 특히 명 사십리길(8.5km) 초입의 핵심부지 활 용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본격적인 해 양레저 관광사업의 첫발을 내딛게 됐 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군청 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과 '명사십리 관광발전 및 전력사업 협력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심은보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 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고창전력시험 센터의 교육·홍보 협력사업 발굴, 고 창전력시험센터 주변 생태복원, 생태 자원화 사업추진 등 5개 협력 분야에 다.

'한국전력 전력시험연구원 고창전 력시험센터'는 고창군 상하면 명사십 리 일원에 자리 잡고 있다.

1989년 실증시험선로 구축을 시작 으로 설립돼 현재는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센터는 고창군이 추진하는 '명사십 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협력하고, 향 후에는 명사십리를 방문하는 관광객 들이 한전의 최첨단 전력기술 홍보와 전기안전문화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군청 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과 '명사십리 관광발전 및 전력사업 협력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공간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고창군은 명사십리길 시작지점에 위치한 고창전력시험센터의 협력으 로, 명품 관광지 개발을 위한 기반시 대해서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 설 조성(주차장, 화장실, 진입로 등)에 착수하고, 민간기업의 추가 투자유치 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7월 기획재정 부로부터 명사십리 한 중간에 있는 부 지매각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내는 데 성공했다.

> 3000억원 규모의 명사십리 관광개발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각 업체들은 고창 명사십리 일대에 리조트와 숙박, 스포츠, 휴양·레져시

설을 만들 계획이다.

고창군 상하면·해리면에 걸쳐 있는 명사십리 해변은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8.5km의 직선형 해안이다.

일몰 시간이 되면 붉은 노을과 하늘 빛 바다, 젖은 흙에 반사돼 붉은빛을 띠는 모래사장, 소나무들의 실루엣이 로맨틱한 장관을 만들어 낸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업무협약 은 고창 해양관광 추진과 전력사업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한국전력연구원과 더욱 긴밀히 이어 국내 중견기업 4개사(社)와 상호 협력하고 소통해 고창 명사십리 해양 관광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고향사랑기금 1호 사업 '안심벨' 지원

부안 변산반도, 한국관광 100선 선정

자연환경 보전·관광 활성화 노력 성과로 평가

부안군은 변산반도가 2025~2026 총 3번 선정됐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고 밝

올해 7회째를 맞이한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

광공사가 한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이 꼭 가봐야 할 한국의 대표 관광

지 100곳을 선정해 2년 단위로 발

이번 선정은 변산반도가 지닌 천

헤의 자연환경과 군의 지속적인 자

연환경 보전 및 관광 활성화 노력

이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받고 있으

며 변산반도는 한국관광 100선에

혔다.

표한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경기 불황 지속에 따라 증가하는 소상공인 1인 점포 사업장에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 성하고,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 하기 위한 '소상공인 1인 점포 안심벨 설치 지원 사업'(이하 '안심벨 사업')

시 고향 사랑 기금으로 시행되는 1호 사업으로, 당초 의원 제안으로 시작된

'안심벨 사업'은 시와 김제경찰서의 협의를 통해 경찰서에 단말기의 고유 번호마다 사업장 위치가 등록되며, 점

주가 위급상황 발생 시 점포의 비상 벨을 누르면 긴급전화가 경찰서로 연

변산반도는 향후 2년간 '대한민

국 구석구석'에 소개되며 국내·외

관광안내소에 배포되는 한국관광

권익현 부안군수는 "변산반도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것은 부

안군민 모두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부안을 방문하는 관광객

들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

도록 변산반도의 매력을 알리고 지

속 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부안=신상수 기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0선 지도에도 이름을 올린다.

4천 원 정도의 통신 요금은 소상공인 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심벨 사업'은 2025년 김제 사업이다.

결된다.

긴급 호출과 통화가 가능한 단말기 를 시가 구입 및 설치 지원하고, 매달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1일까지이 며, 지원 대상은 김제 소재 소상공인 1인 점포 사업주로, 여성 1인 운영 점 포와 범죄 피해 사실이 있는 점포는 가점을 주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2026년 농업기술분야 국비 확보 박차

올해 사업비 19억원 확보, 품종 및 작부체계·재배기술 보급 등 시범 실증 사업 추진 예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1일 전 날 농촌진흥청 방문에 이어 2026년도 농업기술분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립식량과학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 원을 각각 방문했다고 밝혔다.

도연 원상을 예방한 뉘, 관련 무서인 기 술지원과를 찾아 '노지 스마트농업 시 무를 협의했다.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함께 현 장기술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을 방문해 김명수 원장, 이남수 기술지원과장과 차례로 면담 시간을 갖고 오는 2026년 이날 강기수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소 농업기술분야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장은 먼저 국립식량과학원을 찾아 곽 지원을 거듭 요청하는 등 국가예산 확 보를 위해 동분서주 했다.

범지구 조성' 등 시 현안사업에 대한 업 기후위기 등 농업 환경이 크게 변화하 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 향후 차질없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해서는 새로운 기술 도입과 지역에 적

합한 작목, 품종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면서, "김제시만의 경쟁력 있는 농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건 의해 국가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25년 농업 신기술보급 분야에서 사업비 19억여원을 확보한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근 가운데 지역에 맞는 품종 및 작부체계, 재배기술 보급 등 다양한 시범 실증 사 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추진

2029년까지 국비 15억원 투입···노후 주택 보수·위험 시설물 제거 등 진행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 받고 있다. 기 위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 밝혔다.

한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주거 추진 중이다. 및 생활 여건 전반의 개선에 중점을 두

군 관계자는 "올 상반기 공모 선정이 목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지구 주민들 확정되면 오는 2026년부터 2029년까

부안군은 농어촌 지역의 생활 여건을 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 지 4년 동안 국비 최대 15억원을 투입 해 경로당・모정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백산 회포마 개선, 노후 주택 보수, 마을 내 위험 시 원대동마을 등 4개 마을을 사업 완료했 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난 6 이번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 환 으며 현재 하서 평지마을, 상서 우덕 · 년간 연속으로 공모에 선정돼 취약지 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편리 봉은마을, 백산 대산마을에서 사업을 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온 것처럼 올해에도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

/부안=신상수 기자

조사업 공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을, 진서 구진마을, 동진 장등마을, 줄포 설물 제거, CCTV·가로등 설치 등 다양

심덕섭 고창군수, 세계유산 보존·관리 예산 확대 요청

회장)가 22일 오후 최응천 국가유산청 안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심덕섭 군수는 최응천 청장과

의 면담을 통해 ▲세계유산 보존·관리 시협의회와 국가유산청간의 상호 교류 활성화 등 세계유산도시협의회 현안을 건의했다.

최응천 청장은 "세계유산도시협의회

고 있는 경이롭고 신비한 세계유산의 혔다.

한국세계유산도시 협의회는 세계유 산도시 상호간 우호교류 및 공동 사무 국가예산 확대 ▲세계유산 활용을 위 연구를 위해 지난 2010년 고창군, 안동 한 해외 사례 연구 지원 ▲세계유산도 시 등 세계유산 보유도시를 구성원으 긴말한 소통으로 세계유산 보존·관리 로 설립된 단체다.

현재 31개 기초 지자체가 회원도시로 축전을 고창에서 개최하는 만큼 이를 활동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해 11월21일 제29차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장 취임을 축하드린다"며 "고창군을 비 정기회의에서 회장도시로 선출됐다.

사업, 보존관리 사업, 세계유산 축전사 장과 면담하고 세계유산 보존·관리 현 보존과 활용에 적극 협력 하겠다"고 밝 업에 총 52억여원을 투자해 체계적인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 정책을 펼칠 예 정이다.

>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세계유산도 시 협의회를 대표해, 국가유산청과의 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세계유산 계기로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위상을

> >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5년부터 사업으로,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을 상향 조 이상 36개월 이하)와 시간제서비스

김제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자 확대

정해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부담 경 감과 복지 증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확대와 정부 지원 비율 상향으로 아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 이돌봄서비스 이용률이 앞으로 더 됐으며, 정부지원 비율이 낮았던 다 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형(기준중위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의 정부지원 본서비스 개선으로 가정의 양육 부 비율도 상향 조정해 서비스 이용 부 담을 덜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 담을 낮췄다.

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 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후 3개월이상~12세 이하)를 제 공한다.

시는 정부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서효연 교육가족과장은 "아이돌 을 제공할 것"이라며 "양육친화적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

/김제=온봉기 기자

고품질 고창농산물 생산 일등공신 '주목'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고품질 고창농산물 생산의 일등공신 으로 주목받고 있다.

22일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 면 농업종합분석실은 최신기자재를 실은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 갖추고 토양검정실, 퇴·액비 분석실, 농산물 안전분석실로 운영되고 있다.

토양검정은 작물 재배 전 필수 과정 으로 농경지의 토양 산도, 유기물, 유 작지를 둔 농업인에게 무료로 지원하 효인산, 규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함 량과 전기전도도를 분석한다. 농업인 된 후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로 농업 에게 적절한 시비와 시비량을 제공해 인에게 발급된다. 건전한 토양환경 조성과 높은 생산량 을 얻을 수 있다.

정을 실시하고 1차 부적합 판정을 받 은 농가가 공익직불금 수령에 불이익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없도록 적정 시비 지도를 하고 있

퇴·액비 분석실에선 퇴비 부숙도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이 검사 의무화에 발맞춰 가축분뇨 부숙 도 측정, 퇴액비 분석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 고창군 농기센터 농산물 안전분석 약 463성분을 분석해 준다. 지난 2024 년 한해 과학영농 분석지원 건수는 총 7262건으로 고창군에 주소지와 경 고 있으며, 분석 결과는 의뢰가 접수

현행열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은 "앞으로도 고창군 농업인의 농가 매년 약 1200필지를 선정해 토양검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 분석 지원에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연휴 기간 응급진료체계 운영…30일까지

고창군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설 연 휴 기간 군민과 귀성객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 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고창종합병원은 응 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보건기관 12개소, 당직 병·의원 24개소, 약국 12개소가 일자별 지정 운영 된다.

고창군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진료소(11 개소)는 연휴 기간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적으로 진료를 제공하며, 권 역별 진료지역을 나누어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는 ▲응급의료포털(E-gen) ▲군·보건소 홈페이지 ▲보건복지콜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스마트폰 앱(응 급의료정보제공)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토마토뿔나방 확산 차단·피해 최소화 총력 지원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는 "관 내 토마토 재배 전농가 대상으로 토마토뿔 나방 방지를 위해 예찰·방제 물품을 지원 할 계획"이라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2천만원 규모로 검역 해충인 토마토뿔나방 확산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반재배 농가에는 방제약 제를 지원하고, 친환경 재배 농가에는 교 미교란제, 예찰·방제 트랩 등 친환경 자재 를 지원하며, 오는 3월 중 토마토뿔나방 예찰·방제 물품을 농가에 공급한다는 계 획이다.

사업 대상자는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시 설토마토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2월 10일 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사업 신청을 위해 방문 전에 재 배면적, 포장지번 등 영농정보를 숙지하 고, 친환경재배 농가는 친환경인증서를 지 참해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기술보급과 특화작목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2025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희망자 모집

부안군은 2025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사 업 희망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농어촌 빈집 철거 지원사업과 희망 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빈집 활용 이주자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 당 빈집 소재지 읍 · 면에서 오는 2월 14일까 지 신청을 받아 4월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 할 계획이다.

농어촌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1년 이상 사용・거주하지 않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붕 구조에 따라 철 거 비용을 지원한다.

일반지붕은 300만원, 슬레이트 지붕은 400만원이다.

주거용 33동, 비주거용 5동 지원 계획이 며 부안군청 환경과의 슬레이트 철거 지 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65세 이상 노인, 문화 예술 지역활동가 등에게 4년간 무상 임대 하면 빈집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2500만원(자부담 필히 5%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6동 지원할 계획 이다.

빈집 활용 이주자 지원사업 중 정착형 은 빈집을 활용해 거주하려는 관외 거주 자, 부안군 전입 5년 이내 주민에게 리모 델링 또는 신축 비용 최대 3000만원(자부 담 별도 10%)을 지원하며 올해 신규 유형 인 돌봄형은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을 위해 타 지역 거주 자녀의 부안 이주 시 리모델 링 비용 최대 3000만원(자부담 별도 10%) 을 지원한다.

/부안=신상수 기자

완주 '미래 성장 동력' 수소연구소 개원

우석대와 협력···정책 개발·인력 양성·기업 네트워크 강화 등 역할 미래 성장동력 확보…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완주군이 우석대학교와 함께 완주수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 설명회가 진행됐다. 소연구원의 문을 열었다.

22일 완주경제센터에서 열린 개원식 완주수소연구원 부원장, 이준석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장, 유동진 완주연구원장, 김용현 완주산업단지 진흥회장(정석케미칼 대표), 박종구 한 시작으로 축사, 완주수소연구원 경과 국탄소산업진흥원 제품화설루션 센터 장, 심규정 ㈜BTE 대표, 김상식 완주경 제센터장,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R&D의 지원사업 다.

등 60명이 참석했다.

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유의식 완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개발, 현 군의회 의장,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 안 사업 추진, 기업과의 상생네트워크 장, 이홍기 완주수소연구원장, 송형수 운영, 수소 전략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완주군 성장동력 창출 및 지 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 개원 행사는 이홍기 원장의 환영사를 보고 및 향후 추진 계획 소개,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의 기업지원 정책 설명,

또한, 최근 수소연료전지 460억 원 미 완주수소연구원은 완주군 수소산업 국 수출 계약을 체결한 심규정 ㈜BTE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유희태 완주군수는 "수소산업은 우 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 핵심 산업 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이다"며 "앞으로 우석대학교와의 긴밀 한 협력 속에서 수소산업의 활성화 방 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 개발 및 현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설 명절 연휴 강천산·용궐산 무료 개방

자연 속 설 연휴, 강천산 얼음폭포와 용궐산 하늘길 고요함 만끽

순창군이 설 명절을 맞아 대표 관광 명소인 강천산군립공원과 용궐산 하늘 길을 전면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 개방은 오는 28일부터 30 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되며,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방문객들에게 자연 속 여유로운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 됐다.

강천산군립공원은 팔덕면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한국의'호남의 소금 강'이라 불릴 만큼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눈 쌓인 암 벽과 얼음폭포가 만들어내는 절경이 일품이다.

이번 설 연휴 동안 강천산군립공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 되며, 모든 방문객에게 무료로 개방된 다.



순창군이 설 명절을 맞아 대표 관광명소인 강천산군립공원과 용궐산 하늘길을 전면 무 료 개방한다.

하기에 충분하다. 이곳은 설 연휴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이외에도, 순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즐길 거리가 있다. 바 족들과 함께 순창의 대표 관광지를 방 아울러, 용궐산 하늘길은 동계면 어 로 채계산출렁다리다. 순창의 새로운 치리에 위치한 걷기 여행의 명소로, 탁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채계산출렁다리 트인 전망과 함께 자연 속에서 느끼는 본 색다른 경험과 함께 순창의 아름다 서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고요함은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치유 운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으 덧붙였다.

로, 강천산과 용궐산 하늘길 방문 후 들 르기 좋은 명소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설 연휴 기간 가 문해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고, 우리 순 창의 맛있는 먹거리도 함께 즐기시면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 6년째 이어가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 큰 호응

신간 읽고 지역화폐 돌려받고 지역 서점 활성화 일석삼조 효과…지역경제 기여

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기 사업'은 뜨거운 호응과 관심 속에 동) ▲찬장과책장(산내면) ▲비본책방 올해로 6년째를 맞으며 도서관의 대표 (노암동) ▲비니루없는점빵(쌍교동) 총 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도 기존 사업내용과 동일하게 월 4만원 내에서 권당 도서금 간 및 인기도서 등 읽고 싶은 책을 원 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2권을 살 수 있 하는 때에 읽을 수 있어 독서 기회를 도록 해 다양한 도서 선택권을 보장하 기로 했다. 따라서, 남원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 지역경제 활성 책을 구입해 읽고, 한 달 이내에 공공도 화에 기여함으로 일석삼조의 긍정적인 도가 10년 이상 경과한 도서 ▲만화책 서관(어울림·시립·어린이청소년)으로 사업 효과를 내고 있다. 구입한 책과 도서 구입을 증빙할 수 있 한다.

사업 참여 도서관은 시립도서관과 어 린이청소년도서관 2개소였으나, 작년 추진 중인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해마

남원시는 '2025년 책값 돌려주기 사 개소가 추진하며, 참여서점은 ▲신성 지서림(향교동) ▲진서점(하정동) ▲남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책값 돌려 원현서점(도통동) ▲살롱드마고(도통 7곳이 참여한다.

> 책값 돌려주기 사업으로 시민들은 신 확대함은 물론, 지역서점의 활성화와

지난해에는 총 1,147명이 참여해 적) ▲정기간행물 ▲비도서 ▲해외도 는 영수증을 가져오면 월 2권 최대 4만 2,058권이 도서관으로 반납됐다. 반납 서 ▲전집류 ▲오·훼손 도서 등은 제한 원까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원 된 도서는 도서관 장서로 등록돼 도서 된다. 관 이용 시민에게 제공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해로 6년 연속 리집 공지사항 확인 및 어울림도서관, 10월 개관한 어울림도서관을 포함한 3 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과 지역서점의 문의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적극적인 협조로 책 읽는 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청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료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출판연 ▲문제집 ▲수험서 ▲대학교재(전문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공공도서관 누 시립도서관, 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완주군, GS리테일과 자살 예방 사업 협약

군 33곳 GS25편의점에 자가우울검진 감정카드 비치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 장 강남인)와 ㈜GS리테일 편의점 사업부 4부문 3지역(지역팀장 백 력하기로 했다.

은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협 력 사업 진행 ▲자살 및 우울 고위 험군 발굴을 위한 협조 ▲관내 GS 예정이다. 편의점 업주 대상 자살 예방 교육 결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 33곳의 GS25편의점에 감정카드를 비치해 군민들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 검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카드에 다.

는 QR코드가 포함돼 이를 통해 자 가우울검진에 참여할 수 있다.

자가우울검진을 통해 자살 고위 용현)이 자살 예방을 위해 적극 협 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검사 참여 22일 완주군에 따르면 양 기관 자중 매월 10명을 무작위로 선정 해 2,000원 상당의 GS편의점 기프 트카드를 제공해 참여를 독려할

강남인 센터장은 "24시간 운영 실시 등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 되는 편의점의 특성을 활용해 상 시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신소득작목 신기술 발굴 사전 수요조사

는 2025년도 신소득작목 및 신기술 실증연구 과제발굴을 위한 사전 수요 조사를 이달 31일까지 각 지역 농민 상담소 및 이백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실증연구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돼 2024년까지 총 57건이 수행 됐으며 추진성과로 과수 냉해방지 열방상팬 대됐고, 논두렁 물막이판을 이용한 논 물 유실방지 및 잡초방제 실증연구는 소득증대에 이바지 했다.

또한 생분해 비닐 활용 양파 멀칭, 국산 PO필름 포도 재배, 사과 간이 비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 가림 재배, 사과 고밀식 및 다축재배 는 신기술보급사업으로 확대 될 가능 성이 매우 높다.

2025년 총사업비는 150,000천원이 며, 실증연구는 개소당 10,000천원이 하로 10개소, 실증연구 확대 및 심화 이번 신소득작목 및 신기술 발굴 연구 사업은 50,000천원으로 1~2개소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절차는 수요조사 → 사전검토 및 과제선정위원회 구성 평가 → 과 실증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으로 확 제 수행농업인 선정 → 실증연구 세 부 추진계획 수립 및 발표평가 → 사 업추진 → 중간평가 및 최종결과 보 읍·면 특화사업으로 확대 돼 농업인 고 순으로 진행되며 우수과제는 심화 실증 사업 추진 후 시범사업으로 선 정해 확대를 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알츠하이머 위험도 혈액검사 2천명 무료 진행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보건 소장 한용재)는 만 60세부터 70세 (1955~1965년생) 사이의 시민 중 '알 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를 받 을 희망자를 오는 2월 14일까지 선착 순으로 2,000명 모집한다.

는 단 한 번의 채혈로 혈액 속 '베타- 은 대상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지역별 아밀로이드 농도'를 측정해 10~15년 로 찾아가는 방문 혈액검사를 실시할 후 발병할 수 있는 치매 위험군을 조 예정이다. 기 발견하는 검사로 검사비는 무료이

며 남원시가 전액 부담한다.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은 남원시 치 매안심센터(620-7706)나 가까운 보 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전화나 방문 접 수 후 예약일에 방문하면 된다.

검사 절차는 1차 치매인지 선별검 사(CIST)를 통해 인지 평가 결과 정상 군은 2차 혈액검사를 시행하며, 1차 검사에서 인지 저하가 의심되면 2차 혈액검사 없이 '진단검사'를 통해 정 밀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별로 검사 장소는 지정돼 있다. 동 지역 거주자는 예약일에 남원의료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 원으로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읍면지역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설맞이 공설공원묘지·휴양림 점검 만전 기해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 선다. 수)이 설 연휴를 맞아 공설공원묘지, 고산자연휴양림 등의 내방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2일 시설관리공단은 깨끗하고 변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화된 시설의 이미지 제공을 위해 전 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

특히, 명절에 방문이 집중되는 공설 특성을 고려해 설 명절 연휴 동안 시 설관리공단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나

직원들은 주차안내 및 환경정비 등 내방객 편의를 지원하고, 진입로 및 주차장 등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해

또한, 이서혁신도시에 위치한 공영 반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우발적 주차장(이서면 갈산리 691-2)은 오 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무료 개방 비한 철저한 점검도 마쳤다고 밝혔다. 하고, 설 연휴 이전에 공영마을버스 모든 차량을 사전 점검해 안전사고에 공원묘지는 일시에 방문객이 몰리는 대비한다. 사고수습 대응반도 편성해 비상연락망을 정비한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농업용 소형중장비 자격증 취득 교육생 모집

순창군이 농업용 소형중장비 자격증 취 득을 위한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굴삭기, 지게차, 스키드로더 등 소형중장비 운전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 정으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총 40명이며,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해 교육이 실시된다.

신청 자격은 2025년 1월 1일 기준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어야 하 며, 농업 관련 업무 종사자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신체검사서 발급자여야 한다.

교육비는 군비 50%, 자부담 50%로 진행 되며, 1인당 예상 교육비용은 34만원 수준 이다. 단, 최종 교육비는 민간위탁 업체 선 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월 4일까지이며, 각 읍·면 농업인 상담소와 임대사업소(본소)에서 방 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과 농기계관리계 (063-650-5128)로 하면 된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경쟁력 강화 위한 조직 개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원장 이영철, 이하 산업연구원)은 이달 20일자로 조직 개 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바이오산업을 미래 핵심 기 술로 육성하려는 국가 전략과 남원시의 정 책 방향에 맞춰 연구원의 역할과 성과 체계 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편 방 향은 ▲목표와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 업무와 기획업무의 분리 ▲시설 구축 업무 의 행정 연계 강화 ▲비R&D사업 중복업무 배제 및 통합관리를 위한 기업육성팀에 총 괄기능 부여 ▲바이오연구실과 인증평가실 을 R&D분야별 기능 중심 팀 편제로, 그 견 과 3실 7팀 체제로 개편됐다.

정책기획실은 국내 유일 농생명바이오산 업 전주기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입주 활성 화하고 산업연구원의 자립화기반을 구축하 고자 행정팀·연구기획팀·기업육성팀으로, 바이오연구실은 첨단 바이오 융복합 연구 개발 및 사업화로 지역 특화 고부가가치산 업 견인을 목적으로 소재개발팀과 생산기 술지원팀으로 운영한다. 바이오인증평가실 은 남부권(전라도, 경남) 유일 원스톱 분석・ 인증평가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하고자 분석인증팀과 임상평가 TF팀으로 운영된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산업연구원은 바 이오산업 분야의 선도 연구기관으로 도약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체계 를 갖추게 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염기남 순창 부군수 군부대 방문 격려…위문품 전달

염기남 순창 부군수는 지난 21일 설 명절 을 앞두고 제7733부대 3대대와 1625부대 를 찾아 국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부군수는 지역 안보와 군민의 안전 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시를 표하며, 특히 최근 한파 속에서도 맡은 바임 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또한 지역사회와 군부대 간의 긴밀한 협 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염기남 부군수는 "우리 군민들이 평화롭 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든든한 군으로서 역 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쉬는 청년' 취업 기회 제공…최고 250만원 수당

완주군이 쉬는 청년에게 도전의 기회 라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로 를 제공한다.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및 직업 면 이서나루에서 진행되며, 참여자들 훈련 등에 참여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 에게는 건강, 상담, 금융, 법률 등 생활 년들에게 사회와 취업활동의 기회를 역 강화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취업 역 내자료의 구글신청서를 통해 선착순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대상은 18~39세 청년이며, 완주군민의 경우 45세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총 120명을 모집하며, 참여 기간에 따 여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나뉜다. 단기 과정에는 30명, 중기 과정 22일 완주군은 2025년 청년도전지원 에는 60명, 장기 과정에는 30명을 선발 한다. 운영은 삼례읍 완충지대와 이서

> 또한 멘토링과 또래 서포터즈 활동 참여자를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캠 등 새롭게 보완된 프로그램을 통해 참 티종합기술원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문

사업 참여자에게는 참여유형과 달성 도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고 250만 원 의 참여수당이 지급되며, 취업 연계 활 동을 지원하고 성공적으로 취업할 경 우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신청은 완주군 누리집, 인스타그램 등 사업안 로 모집하며, 접수 후 상담을 통해 최종 의하면 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진안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링단', 내달 7일까지 모집

진안군은 진안로컬푸드의 고객 맞춤형 운영을 위해 '진안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 링단'을 내달 7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첫 시행하는 소비자 모니터링단은 전주점, 진안점 각각 10명 내외로 모집하고 있으며, 로컬푸드직매장을 이용하는 고객 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소비자 모니터링단은 3월부터 활동을 시 작해 10월까지 약 8개월간 진안로컬푸드 와 관련한 만족도 조사,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 전달과 직매장에 출하된 농산물을 직 접 체험함으로써 개선사항 등을 건의하고 진안로컬푸드 SNS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자에게는 매월 6만원 상당의 로컬푸드직매장 이용포인트가 지급된다.

신청은 진안군청 누리집 공고/고시(행 정)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농축 산유통과 먹거리정책팀에 방문 접수하 거나, 팩스(063-430-2739) 또는 이메일 (jbg52467@korea.kr)로도 신청이 가능하 다.

김남수 농축산유통과장은 "소비자와 지 속적인 소통으로 보다 많은 군민이 진안로 컬푸드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명절 연휴 기간 비상 진료체계 가동…30일까지

임실군이 설 명절 연휴 기간인 오는 25일 부터 30일까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 상 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설 연휴 기간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 지정·운영을 통한 응급 환자와 일반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군 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진료소 6개소를 포함한 의료기관 37개소, 휴일 지킴이 약국 13개소가 지정· 운영된다.

군은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보건의료원에 비상진료상 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설 연휴 기간 24시 간 응급실 운영(구급차 24시간 대기)을 통 해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할 예정 이다.

설 연휴 의료기관 운영 현황과 세부 일 정은 임실군 보건의료원 홈페이지 및 E-GEN 응급 의료 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심 야시간대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로 신고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안전상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건강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명절 기간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임실군이 내수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과 21일 이틀에 걸쳐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 진했다.

이번 행사에는 공무원 및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임실시장 및 오수 상점가 를 방문해 전통시장 애용 캠페인과 장보 기 및 시장 내 음식점 이용하기 등 민생 경제회복을 위해 적극 동참했다.

전통시장 활력 증진 및 가계 경제적 부 담을 덜기 위해 임실사랑상품권 구매 한 도는 50만원, 10% 할인 혜택을 유지해 판 매하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은 설 연휴 기간 디지털(카드형, 모바일) 15% 확대 할인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장보기 행사는 최근 연말 소비심리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며 "위축된 상권 이 회복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 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농촌보금자리 조성' 100억 확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 선정,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단지·보육시설 등 조성

장수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한 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정주 편의성 '2025년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시업' 공모 에 선정돼 국·도비 65억원 포함 총시업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업비 100억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3년 간장수읍 노하리 일원 16,734㎡ 부지에 공 공임대주택단지 30호와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여가 활동이 가능한 커뮤니티센터 지역이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부지가 장수읍 노하리와 송 랑할 뿐만 아니라 근방 2km 이내에 교 육, 문화, 상업, 체육, 공공시설 등 다양

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받고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을 비 장수군은 이번 공모시업 선정으로 총사 롯해 스마트팜, 장수농공단지, 화훼영 농조합, 사과원예협동조합 등 주요 일 자리 창출 시설과도 인접해 있어 청년 농촌보금자리 대상입지로 안성맞춤인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농림 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 천리 경계에 위치해 장수읍 소재지 전 로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들의 주 체를 조망할 수 있는 수려한 경관을 자 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인 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추진한다.

입주대상은 만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주 연령이 만 40 여기에 최근 여가생활 스포츠로 각광 세 미만이면서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이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갱신1회(1회 2년) 가능하고 취학 아동 이 있는 경우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 최 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

> 최훈식 군수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귀농·귀촌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안정 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조 성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촌지역에 새 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감소를 완 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건강 먹거리 보급 확대 강력 추진

저지종 젖소 원유 숙성치즈 및 무가당 요거트 등 관내 초·중·고 학교급식 제공

임실군이 대장암 발병률 위험을 줄 이는 건강한 먹거리인 임실N치즈와 요구르트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군은 현재 임실치즈농협과 12개 목 장형 유가공업체에서 다양한 치즈와 요구르트를 생산·유통·판매 해오고 있다.

특히 근래에는 칼슘 함량이 높은 발 효식품인 치즈와 요구르트를 다른 지 역과 차별화를 위해 저지종 보급 사업 을 역점 추진 중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저지종 젖소는 영 국 황실에서 공급되는 고급 우유로 더 위에 강하고 장수성이 높으며 후산정 체가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저지종 젖소는 일반 홀스타 인 젖소보다 우유 내 지방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한 프리미엄 숙성치즈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등 고부가가치 제고로 돌파 구를 모색하고자 지속적으로 연구 중 이다.

군은 특히 도 교육청과 협력해 올해 로 꺼리는 경우가 많다.



임실군이 대장암 발병률 위험을 줄이는 건강한 먹거리인 임실N치즈와 요구르트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구르트를 납품 예정이다.

15~20%, 칼슘 함량은 15~18%가 더 문에서 칼슘 300mg을 함유한 우유 한 잔을 매일 마시면 대장암 발병 위험을 이러한 고형분이 높은 저지유를 이 17% 줄일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됨으 로써 우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

> 하지만 유제품 섭취 시 많은 사람들 이 소화 장애 중 하나인 유당불내증으

3월경부터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 반면에 발효식품인 치즈와 요구르트 말했다.

인해 유산으로 분해됨에 따라 유당 함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진의 연구논 량이 낮아져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 들도 잘 소화할 수 있다.

(재)임실치즈엔식품연구소 정석근 소장은 "저지유를 활용한 다양한 숙성 치즈를 계속해서 선보이고 홍보하는 등 안정적인 제품 생산을 위해 연구하 고 지속적으로 소비되기 위해 저지 사 육두수 확대와 저지유 유제품 제조 기 술 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임실=한병열 기자

교 등 34개 교육기관의 학교급식에 요 는 생산과정에서 유당이 유산균으로

무주군, 30일까지 '설 맞이 종합상황실' 운영

재난·쓰레기·의료 등 분야별 종합대책 수립, 귀성객 및 주민 불편 최소화 주력

무주군이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방침이다. 설맞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 근무하게 될 종합상황실에서는 연휴 장터 등도 운영한다. 기간 물가·교통을 비롯한 재난·재해

다.

하게 처리하게 되며 관련 기관과의 꼼히 챙길 계획이다. 비상 연락 체계 유지에도 심혈을 기 설 명절을 전 · 후해 터미널과 마 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혔다. 1상황실 6개 반, 하루 28명이 장 장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직거래 약계층의 안전 확인도 강화한다.

수송 체계를 마련한다, 상수도와 쓰 여 분위기를 확산해 갈 방침이다. 각종 사건·사고와 생활민원을 신속 레기, 가로등, 가스 등 생활민원도 꼼

울이는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해 나갈 을 진입로 등 각 읍면에서는 대청소

를 실시하는 한편, 1마을 1담당 출장 또 무주사랑상품권 구입과 전통시 과 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지역 내 취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무의탁 노 터미널과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 인, 한부모 가정 등을 위문하고, 지역 와 쓰레기, 상하수도, 의료 대책, 그리 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유지와 출향 인사를 중심으로 결연 고 각 읍면 상황을 중점 관리하게 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응급환자 긴급 및 후원을 홍보하는 등 이웃돕기 참

가축전염병 대비 신고 대응 상황도 유지하며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한 대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지역 현안 사업 추진 위해 국회 방문

진안군이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의 면담에서 ▲용담호 하천관리지구 변 품부 심사 선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경(용담호 에코가든 조성사업, 진안·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용담호 에코가든 조성사업은 상전면 월포리 일원에서 용담호 경관 핵심지역 22일 주영환 진안부군수는 국회를 찾 에 진안 대표할 수 있는 대표 관광지를 아 안호영 국회의원을 만나 용담호 에 조성하는 사업이며, 백운지구 개선사업 코가든 조성사업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 은 백운면 덕현리, 동창리, 운교리 일원 에 침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배수로 이날 주영환 부군수는 안호영 의원과 현대화 개선사업으로 현재 농림축산식 다.

천 파크골프장) ▲백운지구 개선사업 ▲ 지덕권 산림약용작물 특화단지(산림청) 신광재 산악관광 활성화 등 진안군의 역 와 신광재 산악관광진흥지구(도-군)사 될 수 있도록 국회 처원에서 적극 돕겠 점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을 연계하는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다"고 밝혔다. 및 반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영환 부군수는 "진안군의 지역발전 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 개선과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 로운 미래이자 후대 자손에게 대대로 물 려줄 진안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전 폭적인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

이에 안호영 의원은 "건의한 사업의 또한 신광재 산악관광 활성화사업은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진안 군에서 요청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꽁꽁놀이축제' 지역특화형 공모 선정 체험 프로그램·주민 적극 참여 호평···4천5백만원 확보

치도에서 주관한 "2025년 지역특 화형축제" 공모에서 "겨울 축제" 게 됐다.

제는 얼음 썰매를 비롯한 전통놀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행한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호평 을 받았다.

이장은 "마을주민들이 지역에 활 고 관광 비수기에 관광객을 유입할 기를 불어 넣어 보겠다고 준비한 축제가 인정받아 굉장히 뿌듯하 다"라며"마을을 넘어 자연특별시 일 이상 운영하며 차별화된 정체성 울 축제로 명성을 쌓아 나갈 수 있 라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내달 2일까지 무주

무주꽁꽁놀이축제가 전북특별자 군 적상면 초리마을 일원에서 진 행되며 눈썰매와 얼음썰매, 달고나 굽기, 빙어 뜰채 체험 등 다양한 즐 로 선정돼 도비 3천만 원(총사업 길 거리가 기다린다. 주민들이 직 비 군비 포함 4천5백만 원)을 받 접 준비하는 떡국과 국수, 김치전 등 향토 먹거리도 맛볼 수 있으며 이번 공모에서 무주꽁꽁놀이축 5천 원 이상을 사용하면 초리마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도 진

한편, 2025년 지역특화형축제 공 모는 지역의 특색있는 향토 자원과 무주군 적상면 초리마을 이병수 관광자원을 활용한 축제를 발굴하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확보한 다는 취지에서 추진한 것으로, ▲2 무주, 나아가 전북을 대표하는 겨 을 보유한 축제 ▲바가지 요금·일 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 정착 축 도록 더 알차게 운영해 나갈 것"이 제 등에 부합하는 축제를 선정했 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민생경제 안정 도모…상수도 요금 감면 연장

장수군은 최근 지속되는 물가 상승 과 경제 불황 속에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 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연 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정을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 연장은 물가 상 승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 황에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다.

이를 통해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의 효과를 기 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제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상수도 요 군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민생경제 금 감면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며 "민 생경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이 앞장서 노력할 것이며, 군 민들이 안정적으로 깨끗한 수도를 공 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 마이산, 10년 연속 '한국관광 100선' 선정

국관광 100선'에 6번째 선정됐다.

'한국관광 100선'은 2년 주기로 국내 명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리매김해왔으며 이번 '한국관광 100

진안 마이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 선'선정을 통해 진안의 마이산은 한국 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5~2026년 한 을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일생에 한 번 은 꼭 가봐야 할 명산으로서의 인기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표 관광지 100 전춘성 진안군수는 "10년 연속 관광 개소를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마 100선 선정을 계기로 진안의 다양한 이산은 2013년~2014년에 이어 2017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머무르고 년~2026년까지 연속 10년 선정되며 싶은 진안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

/진안=전길빈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21일 설 명 바란다"고 말했다. 절을 앞두고 관내 노인생활시설과 아 자와 이용자들을 격려하고 정을 나눴 만원 상당의 행복꾸러미 세트 및 이웃

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지시 지역사회 따뜻한 나눔 문화 조성을 위 설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가 해 노력하고 있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길

한편 장수군은 소외계층이 따뜻한 동복지시설 등 12개소를 방문해 종사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415기구에 4천 돕기 성금 등을 지원했으며 매년 관내 최훈식 군수는 "항상 장수의 복지향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위문하는 등

/장수=최진수 기자

솔가숯불갈비 김제점, 어르신들

위한 갈비탕 지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솔가숯불갈비(대표

김성원)가 지난 21일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25명을 대상으로 갈비탕을 지원하며 따뜻한

이번 식사 지원 행사는 김제노인종합복지

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독거

어르신 25명을 대상으로 김성원 대표와 솔가

숯불갈비 직원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갈비

탕을 대접하며, 어르신들에게 영양 있는 한 끼

김 대표는 지난 2024년에도 총 6회에 걸쳐

150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후원을 진행

해 지역사랑을 실천해왔으며,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인 식사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

한편, 솔가숯불갈비 김제점의 꾸준한 나눔

활동은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따뜻

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나눔의 선순환이 지

/김제=온봉기 기자

역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전하고 있다.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가 제공되는 시간이 됐다.

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저소득 가구에 명절차례용품 전달

사회복지법인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은 설 명절을 맞이해 22일 외롭게 명절 을 보내는 진안 관내 저소득가구에 명절차례 용품을 전달했다.

지원 대상 가구들은 11개 읍·면 지회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명절 준 비에 어려움을 겪는 64가구를 추천받아 선정 했다.

전달된 차례용품은 소고기, 떡국떡, 사골곰 탕, 조기, 사과, 배, 계란, 만두, 김, 부침개로 떡 국 재료와 차례를 지내기 위한 필수품으로 구 성됐다

전달식에는 협의회 읍면 지회장과 봉사자,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김진 회장은 "이번 설명절에도 도움이 필요 한 이웃들에게 고립감과 소외감을 완화시키 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자 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공무직 노조, 장수군에 성금 200만원 기탁

장수군은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장수군지 부(지부장 윤동수)가 22일 성금 200만원을 기 탁했다고 밝혔다.

기탁금은 지난 한누리전당에서 진행된 노 조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공무직 노조 조합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의

윤동수 지부장은 "행정 지원과 민원 처리, 시설 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과제 수행지 원 등 군정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기탁금을 준 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창립 10주년을 기념한 성금인 만큼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훈식 군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장수군 공무직 노조에 감사드린다"며 "기탁 해주신 소중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에게 의미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정읍시공직자,제주항공특별모금2천만원전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자자들에 따뜻한 연대 메시지 전해…기부 문화 확산 기여

정읍시 공직자들이 제주항공 여 객기 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마련 한 특별모금 기부 전달식이 지난 21 일 진행됐다. 시 공직자들은 제주항 공 여객기 사고 피해지를 돕기 위해 특별모금에 나서며 따뜻한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별모금은 사회복지공동모 금회 주최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정읍 시는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강조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난 10일까 지를 공직자 특별모금 기간으로 정 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익산의 한 초등학생 남매가 영어책

익산시는 22일 모현도서관에

읽는 '미라클 리딩 1000권' 프로젝트 이다.

를 진행하고 있다. 미라클 리딩 1000

수여식을 열었다.



정읍시 공직자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마련한 특별모금 기

부 전달식이 지난 21일 진행됐다.

터 진행 중인 교육의 일환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총 2019만 5000원이 모금됐다. 기부금은 이학 수 시장이 대표로 사회복지공동모 금회에 전달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모금은 공직 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통해 기 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 다"며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강조했

정읍시는 앞으로도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 직자의 역할을 이어갈 것을 다짐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무주양수발전소, 쌀 4백 포대 지정 기탁…"지역사회와 함께 할 것"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무주양수발전소가 지난 22일 무주읍 나르미 사업단에서 쌀 4백 포대(1포대 10kg)를 기탁 해 훈훈함을 전했다.

무주군 무주읍에 따르면 무주읍행정복지센 터에 2백 포대, 무주장애인노인복지관에 1백 포대, 발전소 주변 마을 경로당(무주읍·적상 면 15곳)에 1백 포대를 지정·기탁했다.

양해연 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두루 혜 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무주읍을 비 롯한 기관·사회단체에 쌀을 보내게 됐다"라 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발전하는 무주양수 발전소가 되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이 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익산 초등학생 남매 '미라클 리딩 1000권' 도전 성공

영어책 1천권 읽기 성공, 다음 목표는 2천권…모현도서관서 성공 인증서 수여식 열어 권은 영미권 도서관이 유아의 책 읽 1,000권을 읽는 도전에 성공해 화제 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3월부 익산에서 처음 배출된 1,000권 달 서 '미라클 리딩 1000권(MIRACLE 성자인 운산·서아 남매는 매일 같이 READING 1000BOOKS)' 성공 인증서 도서관을 방문해 책을 읽고 대출 해 가며 도장을 찍는 열정과 끈기를 보 익산시립어린이영어도서관은 지 였으며 앞으로 2,000권 돌파를 목표 역 아동을 대상으로 매일 영어책을 로 영어책 읽기를 이어간다는 계획



한국쌀전업농전북도연합회,600만 원상당 쌀기부

전북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한국쌀전업농 전북자치도연합회 상당을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제부지사, 이호석 한국쌀전업농 기탁해 주신 한국쌀전업농 전북연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장, 이원엽 합회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수석 부회장, 이우식 사업 부회장, 도도민 복지 향상과 나눔 문화 확 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나눔의 했다. 의미를 더했다.

한국쌀전업농 전북자치도 연합 회는 올해 처음으로 쌀 기부를 시 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 작하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해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의 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에게 기부 손길로 쌀 200포(10kg), 600만 원 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도내 어려운 취 이번 기탁식에는 김종훈 도 경 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나눔쌀을 그리고 노진선 전북사회복지공동 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정소민 기자



문화와 이래산업도시 남원

남원시 송동면, 뱀의 해 맞아 끝 없는 기부행렬

서는 뱀의 해를 맞이하여 취약계 층 및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훈훈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성금을 한 기부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 했다. 나눔을 실천하는 이복기(73세)씨 노일환 송동면장은 "소외된 이 는 올해에도 취약계층을 위해 써 웃들을 위해 관심을 이어가 주시 달라며 20kg 60포(400만원 상당) 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를 기부하여 21년 동안 이웃사랑 겨울이 유독 힘든 이웃들에게 큰 나눔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파로 인 드리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해 주변의 많은 취약계층이 추위

남원시 송동면행정복지센터에 에 노출되어 있다"라며, "송동면 의용소방대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기탁하게 됐다"고 60만원을 기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통 행정을 또한 남원시 송동면 의용소방대 강화하여 온정을 담아 잘 전달해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동상면 주민 이순호씨, 200만 원 기부…3년째 나눔 실천

완주군 동상면 산천마을 주민 이순호씨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1일 성금 200만 원 을 전달했다.

이순호씨는 지난 2023년에도 현금 300만 원을 선날하고, 2024년에는 백미 1,000kg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온정을 보 내오고 있다.

전달받은 후원금 200만 원은 동상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설 명절 먹거리로 구 입해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순호씨는 "동상면의 모든 주민이 따뜻 한 명절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나눔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정식 공동위원장은 "3년째 꾸준한 관심 과 사랑으로 동상면의 이웃들에게 온기를 베 풀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동상면 지역사 회보장협의체도 그 온기를 전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감기와 독감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통해 면역력 높이기
- 손 깨끗이 씻고,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는 눈, 코, 입을 비비지 않기
-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60개월 미만의 소아, 65세이상의 노인과같이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매년 독감 예방 접종 잘 챙기기()



〈一事一言〉



'자유우파'라는 이름의 '망상 공동체'(2)

유시민 작가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당의 일 부 배신자들과 함께 아무 잘못이 없는 나를 탄핵했다. 경찰·검찰· 공수처·법원마저 장악해 불법적 폭력을 행사하며 관저에 쳐들어 왔다. 내가 구속되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다. 나를 지지하는 청년

들이 있다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

윤석열은 진지하다. 미치지 않 았다. 윤석열의 모든 행위를 옹 호하는 국힘당 정치인과 변호사・ 종교인·언론인·유튜버도 머리 에 꽃을 달고 다니지 않는다. 지 난 며칠 동안 한남동 대통령 관저 와 과천 공수처, 체포영장을 발부 한 서울서부지법과 체포 적부심 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을 순회 하면서 시위를 벌인 태극기 부대 원들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의 이름을 외치며 서부지법 청사 를 때려 부셨던 청년들도 미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특이할 뿐이다. 신 뢰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로 추정 하면 대한민국 국민 넷 가운데 하 나는 그들과 생각이 비슷하다. 국 민의 25퍼센트를 미쳤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특이한가? 보통 수준의 사유 능 력을 가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 는 허구를 그들은 사실로 여긴다. 사실과 거짓을 섞어 꾸며낸 이야 기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 그 런 이야기들을 조합해서 만든 가 상현실과 실제상황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 현실과 무관한 망상을 올바른 사상이라 확신한

다. 그런 망상을 전파하는 자를 지도자로 모시면서 돈과 열정을 바친다.

이것은 미친 짓이 아니다. 사람 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많든 적든, 그와 비슷한 행위를 하면 서 산다. 게다가 그들의 지도자는 제법 그럴듯한 면모를 지니고 있 다. 정치학 박사, 목사, 언론인 같 은 타이틀을 달고 있으며, 유튜브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 과 라디오 방송에도 나온다. 그들 이 공유하는 신념체계를 알면 비 상계엄 선포에서 구속영장 발부 까지 윤석열이 벌인 모든 일을 한 줄에 꿰듯 이해할 수 있다. 윤석 열과 그들은 모두 같은 집단에 속 해 있다. 그들 스스로는 '자유 우 파'라고 하고, 관찰자인 나는 '망 상(妄想) 공동체'로 간주하는 정 치적 진영이다.

자료가 많은데 아주 괜찮은 것 하나를 전광훈TV에서 얻었다. 1 월 16일 업로드한 '광화문 천만 동원을 위한 5대 유튜브 특별 생 방송'을 보다가 그 자료를 발견 했다. 전광훈이 사회를 맡고 고성 국, 이봉규, 신의한수 신혜식, 펜 앤드마이크TV의 내가 알지 못하 는 기자, 그렇게 다섯 명이 한 대 담이었다. 유튜브 썸네일에 여 러 격문이 걸려 있었다. '국민이 여 일어나라 국가가 위험해졌다.' '이재명에 속아 북한처럼 될 것인 가?'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 오라!' '2025년 1월 18일(토) 총궐 기로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전광 훈TV는 라이브 방송을 할 때 매 번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그 영상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멸망 시나리오'라는 제목을 붙이면 좋 을 영상이다. 최근 극우 유튜브 방송들은 비슷한 영상을 수없이 송출했다.

굳이 시청을 권하고 싶지는 않 다. 핵심 메시지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영상은 '브금'과 화면 특수효과 때문에 문자 텍스트보 다 훨씬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 하지만 굳이 볼 필요까지는 없다. 흑백 자료화면에 맥락을 허위로 조작한 문재인 이재명의 발언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말을 이어 붙여 마치 대한민국이 멸망 직전에 놓인 것 같은 망상을 전파 하는 그 영상의 요지는 다음과 같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충돌한다. 촛불시 위는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 수, 평화협정·종전협정, 연방제 통일을 외치고 태극기 세력은 문 재인·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 화, 주사파 척결, 자유 통일을 주 장한다. 북한 간첩들이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고 빌딩에 올라 가 촛불시위대를 저격한다. 이성 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총을 빼앗 아 경찰을 공격한다. 북한이 전국 에 구축해 둔 지하 조직이 좌익 성향 국민을 선동해 전국 동시 무 장봉기를 일으키고 국내에 들어 와 있는 중국인과 조선족 백만 명 이 가세한다. 그들은 파출소와 무 기고를 습격해 무장하고 내전을 일으킨다. 북한 특수부대가 걷잡

을 수 없이 혼란해진 대한민국을 침략한다. 좌경화된 국민은 김정 은을 환영해 연방제 통일을 이룬 다. 1946년 대구 폭동에서 시작해 제주 4.3, 여순반란, 5.18광주로 이어진 북한의 공작을 완성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자유 시민 천만 명을 학살한다. 천만 명은 보트 피플이 되어 일본으로 탈출한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윤석열이 대통령 에 당선되어 정권교체를 이루지 않았으면 벌써 일어났을 일이다. 일본 국회는 이런 사태를 예상하 고 난민 대책을 논의했다. 대한민 국 국민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

이것이 가상현실이 아니라 실 제상황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라도 촛불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1년 전 이재명 대표의 목 을 찔렀던 김진성이 그런 사람이 었다. 윤석열도 그런 사람이다. 언론의 펜으로 죽이지 못했고 김 진성의 칼로 죽이지 못했으며 한 동훈의 법으로도 죽이지 못했던 이재명과 민주당을 제거하려고 윤석열은 특전사와 HID의 무장 병력을 동원했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거짓말·책임전가 급급한 윤석열의 비루함

구속 수감된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법 재판소에 출석해 한 발언들을 지며보면 충격과 분노를 넘어 인간에 대한 연민까 지 느끼게 한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지 않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의 말과 행동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민주 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는 돌이킬 수 없는 혼란 과 위기에 빠질 것이다.

12.3 계엄 당시, 특전사령관과 수방사 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국회에 투입된 무 장 군인들에게 도끼와 총을 사용해서라 도 국회의원을 물리적으로 끌어내라는 불법적인 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분명한 내란 행위로, 군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시도였다. 다행히도 이러한 끔찍한 사태를 막아낸 것은 불법 명령을 거부한 현장 지휘관들과 이를 저지한 수 많은 애국 시민들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은 이를 자신의 공적으로 돌리며 "유혈 사태를 막은 것은 나의 공로"라는 식의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이는 역사적 진실 을 왜곡하고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뻔 뻔한 행태다.

윤석열은 또한 계엄 포고령이 국방장 관 김용현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며 책 임을 떠넘겼다. 최상목 재경부장관에게 도 비상입법기구 운영 예산을 확보하라 는 문건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이미 드러난 증거 와 증언에 의해 거짓으로 판명됐다. 그 는 대한민국의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 다 훨씬 강한 '초 갑'이라며 자신을 피해 자로 포장하려 했다. 하지만 정작 그는 국회의 의결을 무시하며 거부권을 남발 했고, 언론의 비판 보도에 대해서는 검

찰과 방심위를 동원해 보복성 조치를 취 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독재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제 살길 찾 겠다고 벌이는 위선과 가식이 참으로 비 루해 보여 민망하다.

윤석열의 실정과 악행은 그를 탄핵의 위기로 몰아넣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그는 내란을 선동하는 망상적 행동을 보 였다. 자신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 도록 방치한 것은 명백히 그의 책임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헌법재판소 에서 미안함은커녕 오히려 뻔뻔하고 당 당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국민을 무시 하고 법과 도덕을 경시하는 그의 본질을 드러낸다.

헌법재판소 심리가 끝난 후 윤석열은 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병원으로 이동 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는 사전에 법무부나 국방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 의적인 행동으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 익만을 추구하는 그의 행동은 국민적 분 노만 불러일으킨다.

윤석열의 거짓말과 무책임한 태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혼란을 극대화하 고 있다.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 하기 위해 내란을 정당화하고 국민을 기 만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이 제는 그를 엄중히 심판하고, 이 무법천 지 난장판을 끝장내야 한다. 헌법과 민 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수사기 관과 사법부는 추상과 같은 단호함을 보 여야 한다. 더 이상의 혼란과 분열을 방 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뿐 이다.

문 화 재 열

흥성동헌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궁궐, 관아

-지정일 - 1976년 4월 3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고창군 흥덕면 동헌 길 4



팔복지사 010-3015-4791

송천지사- 010-5242-3694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678-4271 인후지사 010-8640-6855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부안지국 010-7247-3947 고창지국 010-2258-3734 완주지국 010-3672-0308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인쇄인 김은주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오늘의시

돌멩이 하나 / 김남주

하늘과 땅 사이에 바람 한점 없고 답답하여라 숨이 막히고 가슴 미어지던 날 친구와 난 제방을 걸으며 돌멩이 하나 되고자 했다 강물 위에 파문 하나 자그맣게 내고 이내 가라앉고 말

1946년 전남 해남 출생. 1969년 전남대 영문 과에 입학했다. 1972년 유신 헌법이 선포되 자 지하신문인 '함성'을 제작했다. 이 사건으로 편의 시를 발표했다. 1978년 남민전에 가입, '진혼가', '나의 칼 나의 피' 등을 출간했다.

그런 돌멩이 하나 날 저물어 캄캄한 밤 친구와 나 밤길을 걸으며 불씨 하나 되고자 했다 풀밭에서 개똥벌레쯤으로나 깜박이다가 새날이 오면 금새 사라지고 말

그런 불씨 하나

그때 나 묻지 않았다 친구에게 돌에 실릴 역사의 무게 그 얼마일 거냐고 그때 나 묻지 않았다 친구에게 불이 밀어낼 어둠의 영역이 그 얼마일 거냐고 죽음 하나 같이할 벗 하나 있음에 나 그것으로 자랑스러웠다

1973년 구속되어 전남대에서 제적당했다. 출 활동하다 1979년 서울에서 체포되어 구속됐 소 후 창작과 비평지에 '진혼가', '잿더미' 등 7 다. 광주와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첫 시집



2025년설명절연휴,군산에서즐길곳어디?

군산시가 직접 추천하는 역사와 낭만이 가득한 여행지 6곳…역사, 문화,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

특유의 빈티지한 분위기 덕분에 많은 함께하는 말도·명도·방축도 해상트레킹

이 제격이다.

지난해에는 '고군산군도 자전거길'이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에 선정되는 영

예를 안기도 했다. 바다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자전거 여행 역시 고군산군

관광객들이 찾는 이곳은 철길을 따라 늘

어선 작은 가게들이 마치 과거로 시간여

무엇보다 철길을 배경으로 옛날 교복

을 입고 찍는 사진은 과거의 향수를 듬

뿍 누리고 싶은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군산 여행이 처음이라면, 좁은 골목길

을 따라 이어지는 철길을 걸어보며 향수

에 젖어보면서 달고나, 쫀드기 등의 맛

[고군산군도, 자연의 신비를 간직

아름다운 섬의 군락인 고군산군도를

가보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군산여행을

선유도를 중심으로 신시도와 무녀도

장자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

인도로 이뤄진 고군산군도는 천혜의 해

있는 먹거리도 즐겨보자.

한 아시아의 보물]

다녀왔다고 할 수 없다.

행을 떠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자리잡았다.

올해 설 연휴는 연차를 쓰면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국내외 관광지를 검색하느라 바쁘다.

이에 군산시는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여행지 군 산 추천 관광지 6곳'을 직접 선정해 홍보에 나섰다.

근대문화유산이 가득한 원도심에서의 시간여행 부터 천혜의 자 연경관과 지질 명소를 탐방할 수 있는 군산의 추천 관광지는 과연 어디일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설맞이 문 화행사와 함께 떠나는 역사여행]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일제강점기의 군산의 생활상을 배경으로 한 근대사와 우리 민족의 항일 역사를 보여주는 군산 의 대표 박물관이다. 또한 근대문화도시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 지점이기도 하다.

박물관에서는 과거 무역항으로 해상 물류 유통의 중심지였던 옛 군산의 모습 과 근대문화자원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 관에서 나오면, 일제강점기 경제적 수탈 의 현장이었던 근대건축관(구 조선은행 군산지점)과 근대미술관(구 일본 제18 림 役)가 타고 다녔던 자동차가 주차되 은행) 등이 거리에 줄지어 서 있어 근대 역사로 떠나는 시간여행이 가능하다.

매년 설 연휴 기간 박물관 일원에서 열리는 명절 한마당 문화행사도 추천. 1 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마술·저글링 공연과 캐리커처·전래놀이 체험프로그 램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다.

[군산 원도심에서 만나는 추억의 명화, 8월의 크리스마스 속 초원사 진관]



초원사진관은 1998년 개봉한 영화 〈8 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로 관광객들에 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배우 한석규, 심은하 주연의 1998년 작 〈8월의 크리스마스〉는 많은 영화 팬 들에게 큰 인기를 끌 초원사진관은 이제 영화와 함께 기억되는 장소가 되었다.

특히 옛 향수를 간직한 영화팬들에게 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감동적인 경험 을, 영화를 잘 모르는 MZ세대에게는 특 유의 감성적인 분위기를 선사하면서 매 년 관광객 수도 늘어나고 있다.

초원사진관 한쪽에는 심은하 배우(다 어 있어 더욱 색다른 추억을 남겨주기도

[경암동 철길마을,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군산의 레트로 명소]

경암동 철길마을은 철길과 그 주변의 골목길들이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가 만 나는 특별한 장소이다.

가장 먼저 군산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 하고 레트로한 감성을 갖길 원한다면 경

양관광 자원을 보유한 관광명소이다. 암동 철길마을에 들러볼 것을 추천한다. 2017년 새만금방조제를 통해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되어 6개의 섬을 차량 으로 오갈 수 있게 되면서 접근성이 향 상되었고, 2023년에는 문체부 K-관광섬 육성사업에 말도, 명도, 방축도가 선정되 어 서해안권에서 제일가는 명소로 발돋

>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장자교 스카이 워크 ▲선유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위를 가로지르는 스카이썬라인과 같은 아찔 한 체험은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다.

> 반면 자연의 웅장함과 신비함을 느끼 고 싶다면 ▲선유도와 장자도의 풍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대장도 대장봉 ▲물때 에 따라 바닷길이 열리면 건너갈 수 있 는 무녀도 쥐똥섬 ▲독특한 지질구조와

도를 즐기는 멋진 방법이 될 것이다.

파지길에서 찾는 평화]

비응마파지길은 아름다운 자연과 어 우러진 트레킹 코스로,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서해바다의 경관을 만끽할 수 특한 군산의 힐링 명소] 있는 명소이다.

보면, 이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응항 방면으로 가다보면 새만금비응공 원 끝자락 주차장 부근에서 비응마파지 관을 즐길 수 있다. 길 안내판을 볼 수 있다.

분 정도 들어가면 넓은 바다와 해안을 따라 조성된 데크길이 눈앞에 그림같이 이 물들고, 겨울에 새하얀 눈이 내린 설 펼쳐진다.

뭐니뭐니해도 비응마파지길에서 맞이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하는 일몰은 서해안의 넓은 바다와 함께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의 색이 환상적이 다. 사진 촬영을 좋아한다면 해질 무렵 [서해의 고요한 아름다움, 비응마 에 방문해서, 바다 위로 비치는 석양의 아름다운 순간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은파호수공원, 자연과 여유가 가

은파호수를 중심으로 조성된 은파호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바다의 파도 수공원은 아름다운 자연과 여유로운 시 소리와 바람을 느끼며 길을 따라 걷다 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사랑 을 받고 있다. 공원 내에는 호수를 둘러 군산 시내에서 새만금북로를 따라 비 싼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방문객 들은 산책을 하며 호수와 주변 자연 경

특히 봄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만개하 이곳에 주차를 하고, 사잇길을 따라 10 여 많은 인기가 있는 은파호수공원은 여 름에는 녹음이 짙어지고, 가을에는 단풍 경 또한 훌륭하여 사계절 내내 경관을

/군산=지송길 기자







